

진주 축석루 제영시의 제재적 성격

하 강 진*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축석루의 심미적 요소 |
| 2. 축석루의 변천 과정 | 1) 본루와 부속 누각의 경관 |
| 1) 본루의 창건과 중수 | 2) 축석루의 논개 사적 |
| 2) 부속 누각의 존속 실태 | 4. 맺음말 |

국문초록

축석루 제영시는 진주 지역의 문학성을 대표하는 문학 갈래로서 인정받고 있다. 축석루는 역사적으로 흥폐를 반복했고, 누각 존립의 실태에 따라 형상화된 시적 의미도 다양한 편폭을 지니고 있다. 이는 축석루 시를 이해할 때 치밀한 제재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재로서의 축석루는 누각들의 변천 과정, 누각의 배치 형태, 누각의 심미적 요소 등의 특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를 검토했지만, 결과가 불충분하거나 역사적 실체와 합치되지 않은 점이 더러 있다. 따라서 여러 문헌과 자료를 통해 본고에서 규명한 새로운 결과는 제재 접근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축석루는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는데, 기존의 경우 일곱 번으로 보고 있으나 1786년과 1887년 두 차례 더 중수가 있었던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이

*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영상문예창작전공 교수

로써 18세기 이후 200여 년간의 중수 공백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성이 함락될 때 축석루는 전소되지 않았고,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제에 부합함을 알았다.

축석루는 단독 건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서각과 동각을 부속 누각으로 거느린 웅장한 건물 구조였음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흔히 이를 간과하고 있지만, 임란 전까지만 해도 축석루는 쌍청당과 임경헌을 서각으로, 함옥헌과 청심헌을 동각으로 거느렸다. 부속 누각은 임란 때 모두 소실되었는데, 서각은 끝내 복구되지 않았고, 동각은 곧바로 중수되었다. 이중 청심헌은 적어도 1757년 이전에 벌써 훼손되었고, 함옥헌만 유일하게 존속되다가 20세기 초에 사라졌다. 이는 축석루 본루만 기억되는 현재의 고정 관념과는 아주 다름을 보여준다.

축석루는 부속 누각의 존재로 승경에 대한 심미적 흥취가 더욱 배가되었다. 한편 임진왜란의 특수한 경험은 축석루의 제재 영역을 확장하고 주제 의식을 전환시켰다. 즉 왜적에 대한 집단적 적개심, 전후 누각 중건에 따른 희열과 민족 자부심 등은 축석루 제재에서 발견한 새로운 인식 내용이다. 특히 임진 사적을 대표하는 의암, 의암사적비, 의기사 등에 상징화된 충의 정신은 근대에도 여전히 축석루 제형시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이다.

의암사적비는 의암 위 언덕의 비각 안에 세워져 있다. 하지만 이 비석은 원래 축석루의 부속 누각인 동각 위에 건립되었는데, 옛 지도나 개인 일기를 통해서 그 실재를 최초로 입증했다. 이보다 약간 뒤에 나라로부터 사액을 받아 의암 위에 정려각을 건립했는데, 19세기 이후 어느 때에 현 위치로 비석을 이전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의외의 형태로 되었을 뿐이다. 이로써 의기 정표로서 의암사적비는 거의 동시대에 정려각과는 따로 존재했고, 애초의 위치는 지금의 장소가 아닌 축석루 위쪽이었음이 새롭게 드러났다.

축석루가 역사적으로 변천한 실체에서 보듯이 제재에 대한 치밀한 분석은 작품 해석과 감상의 기초적 단계로서 의의가 있는데, 본고를 통해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축석루의 연혁, 부속 누각의 변천, 축석루의 심미, 논개 사적, 의암, 의암사적비, 정려각, 의기사, 제재의 확장, 주제의 심화

1. 머리말

晉州는 건치 이래 국방과 행정의 중요한 지역이었고, 특히 임진왜란 이후로 경상 우병영이 창원에서 진주의 矗石樓로 이전됨으로써 전략적인 거점 도시가 되었다. 진주는 고려 중엽 이후 빼어난 산수로서 명성을 얻었는데,¹⁾ 그것을 대표한 것은 진주성의 남장대인 축석루였다. 축석루는 평상시에는 공무로 재직하던 관리들이 사신을 접대하거나 정치 담론을 공유하는 공식 공간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진주를 유람한 시인묵객들이 여흥을 즐기거나 시문을 짓고 감상하는 등 풍류로써 교유하는데 핵심 장소로 활용되었다. 여기에는 축석루가 남강의 높은 절벽 위에 우뚝하게 건립됨으로써 수려한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입지적 특징이 크게 작용했다.

矗石樓 題詠詩는 고려 말 鄭乙輔(1285~1348)가 최초로 지은 이래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작품이 개인 문집이나 읍지로 전해지고 있다. 그만큼 축석루가 진주 지역의 문학성을 형성하는 데에 절대적인 공간이 되었음을 증명한다.²⁾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축석루만을 제재로 한 시가 500여 편에 이르고, 작가는 문인이나 승려 등 270여 명이나 된다. 특히 축석루의 제영이 담긴 현판은³⁾ 후대 사람들에게 유람의 감격을 고양하고, 차운시나 새로운 시 창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⁴⁾

1) 이인로, 『파한집』 상권 “晉陽古帝都, 溪山勝致爲嶺南第一.”

김지대, 「寄尙州牧伯崔學士滋」(『동문선』 권18) “洛邑溪山雖洞府, 晉陽風月亦仙鄉.”

2) 이륙의 『청파극담』, 조신의 『수문쇄록』, 권옹인의 『송계만록』, 허균의 『학산초담』, 이수광의 『지봉유설』 등 각종 시화집에 수록된 여러 일화를 보더라도 축석루가 진주 지역의 문화 형성에 구심적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현재 축석루에는 신유한이 지은 남쪽 주련과 9편의 현판 제영시가 남아 있다. 옛 날에는 지금의 10수보다 훨씬 많았는데, 황의열은 현전하는 현판시를 대상으로 내용과 형식적 특징을 논한 바 있다.(「축석루 시 평설」, 『경남문화연구』 20,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 1998)

4) 김안국, 「次矗石樓韻」(『모재집』 권1) “滿壁詩留今古興, 憑欄目盡北南流.”

양응정, 「矗石樓」(『송천유집』) “當筵唱咽雲留陣, 滿壁詞雄水倒流.”

이 과정에서 金柱宇(1598~1644)가 쓴 축석루의 편액은 수백 년간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그는 서법이 절묘하여 한 때를 풍미했는데, 불과 13세의 나이에 쓴 축석루 글씨는 한 자가 한 벽면을 차지할⁵⁾ 정도였다. 아울러 그의 거대한 필치는 조선후기까지도 전해져 누각의 웅장한 형세와 어울렸다는 평가를 받았고, 신동이 누각의 편액을 쓰다가 축석루의 ‘樓’자에 이르러 기운이 탈진하여 완성하지 못하자 고을의 기생이 써 넣었다는 전설이 형성되어 세간에 회자되기도 했다.⁶⁾ 축석루의 빼어난 경치와 함께 편액의 글씨는 승람의 동기와 진주의 명성을 배가시키는 이미지로 작용하여 실제 제영시 창작의 자산이 될 수 있었다.

한편 소위 진주대첩으로 불리는 1차 진주성 전투에서 김시민 장군이 장렬히 전사했고, 6만여 명이 전사한 2차 진주성 전투 때에는 三壯士와 論介라는 순국 영웅이 탄생했다.⁷⁾ 그 혈전의 현장인 축석루는 충절의 상징적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진주를 애국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로 형성했고, ‘忠妓’의 차별적 속성이 돋보인 축석루는 곧잘 ‘烈娘’의 밀양 영남루와 갑론을박되면서 영남의 대표적인 누각으로 각인되었다.⁸⁾ 이러한 역사성의 가미로 축석루는 활발한 시 창작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니, 개인 풍류의 미적 경계를 넘어 이제는 국가 의식의 내면화라는 차원으로 전환되어 주제 영역이 심화·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했다.

이유원, 「矗石樓」(『가오고락』 冊5) “祠傳義妓朱巖立, 筆健文人墨板留.”

- 5) 이광정, 「易民金公行記」(『눌은집』 권19) “公之書法, 亦妙絕一時. 十三, 書晉州矗石樓額, 一字一壁.”
- 6) 송병선, 「丹晉諸名勝記」(『연재집』 권21) “額是神童筆, 而劃如椽, 幾欲與樓勢爭雄. 世傳神童, 寫至樓字, 未了而氣盡, 邑妓填補云.”
- 7)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에서 펴낸 『논개 사적 연구』(신지서원, 1996)는 논개의 생애와 절의, 진주성 전투, 사적의 전승, 현대적 의미 등으로 분류하여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 8) 대표적으로 홍직필의 「記嶺南樓事」(『매산집』 권27)에서 인식의 저변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자의 「밀양 영남루 제영시 연구」(『지역문학연구』 13호, 경남·부산지역문화학회, 2006)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축석루 제영시의 다층적 주제는 제재의 성격 변화와 밀접히 연계된 것이었다. 제영시가 누각, 고적, 사찰 등 특정한 제재를 형상화한 것이라는 갈래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축석루 제재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미적 세계를 규명하는 데 기초적인 연구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다섯 가지로 설정한 아래의 전제는 시적 제재로서 축석루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첫째, 축석루는 창건 이후 몇 차례의 중건이 있었고,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는가?

둘째, 축석루는 창건 이후 현재처럼 한 채의 누각만 있었는가?

셋째, 축석루의 본루와 부속 누각은 어떤 심미적 요소가 있는가?

넷째, 축석루의 의암사적비는 당초 어디에 건립되었는가?

다섯째, 논개의 의기 정표는 의암사적비 외에 또 없었나?

위의 질문은 축석루의 연혁이나 논개 사적과 관련하여 제기한 것이다. 기존의 여러 논저에서 첫 번째 것만 주로 다루어졌는데, 축석루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중건이 있었고, 임진란 때에는 전소가 아닌 부분적으로 소실되었음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축석루는 대개 단독의 건물로만 이해되고 있고, 당연히 부속 누각의 존재 자체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문헌 자료나 시각 자료를 면밀히 조사해 보면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즉 축석루는 누각의 동쪽과 서쪽, 혹은 동쪽에 부속 누각이 엄연히 실재하였고, 본루만 인식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논개의 의기 정표를 위해 건립된 의암사적비는 원래는 현재의 위치가 아니었고, 또 비석과는 별개로 동시대에 정려각도 존재했음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이상의 문제 제기에 대한 주요한 답변은 이 논문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고, 논개의 새로운 결과는 축석루 제영시를 분석하고 감상할 때 기본

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재의 성격 변화가 제영시의 확장에 미친 영향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 문집이나 공·사찬의 읍지에 수록된 기존의 내용이나 새롭게 발견한 기록을 폭넓게 다루되, 미처 주목하지 않은 이준의 『도재일기』와 진주의 고지도나 그림 등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축석루 정보를 입증의 근거로써 두루 활용할 것이다.

2. 축석루의 변천 과정

1) 본루의 창건과 중수

중세 시대에 관청에서 누정을 짓고 경영하는 것 자체는 통치 행위의 본질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것의 흥폐를 고을의 인심이나 세도의 상태와 연계시켜 인식했다.⁹⁾ 이러한 누정 건립의 관점을 토대로 축석루는 1219년 과거에서 장원급제한 金之岱(1190~1266)가 진주목사로 부임한 시점인 1241년에 최초로 창건하였고, 그 이후 安震(1293~1360)¹⁰⁾이 1322년 진주목사로 재직할 때 자연 상태로 허물어져 있던 축석루를 중건하였다.¹¹⁾ 하지만 안진은 자신의 글에서 중건 사실을 진작 명시하지 않은 점

9) 하륜은 축석루 중건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夫以一樓之廢興，而一鄉之人心可知矣。一鄉之人心，而一時之世道可知矣。”(『축석루기』, 『호정집』 권2)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은 누각 건립과 운영에 관한 중세 시대의 보편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0) 대부분 안진의 출생연도를 미상으로 처리하는데, 여기서는 고혜령의 「고려 사대 부와 元 제과」(『국사관논총』 24집, 국사편찬위원회, 1991)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밝혔다. 안진은 1313년 문과에 장원급제한 뒤 1318년 元의 制科에도 급제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보인 신진사대부였다.

1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0 「진주목」 <누정조> · 축석루 “河崙記---且其名樓之義，則淡庵白先生曰 ‘江之中有石矗矗，故樓曰矗石。始手金公，而再成於安常軒，皆壯元也。’故又壯元之名焉。”에 축석루의 창건 기록이 비로소 나타난다. 박경원(『晉

은 의문이 남는다.¹²⁾ 그리고 백문보가 강 가운데의 ‘우뚝 솟은 돌[矗石]’ 위에 누각이 건립된 것을 보고 矗石樓라 명명함으로써 일반화되었고, 원래는 초기 누각 건립에 관여한 김지대와 안진이 모두 장원 급제한 것에서 유래되어 壯元樓라 불렸음을 알 수 있다.¹³⁾

축석루는 고려 말 이후 여러 차례 훼손과 중수의 과정을 겪었다. 1379년 왜구의 노략질로 축석루가 소실된 뒤 황폐한 채로 있다가 조선조에 들어와 고을 원로들의 재건 제의로 용두사의 승려 端永이 주관하던 것을 나라의 지원에 힘입어 1413년 9월에 진주 판목사로 부임한 權衷(1349~1423)이 판관 박시결과 함께 중건을 완료하였고,¹⁴⁾ 1491년에는 진주 목사 慶紘이 판관 오치인과 더불어 다시 중수하였다.¹⁵⁾ 당시 축석루는 ‘蘭亭’에 비유되어 선비들이 도의와 풍류로써 교유하는 데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되었다.¹⁶⁾ 그 이후 세월이 100여년 흘러 대들보가 부러지고 기

州 矗石樓 創建考-여말선초의 누각경영-, 『고고미술』 165, 한국미술사학회, 1985)은 ‘김공’을 ‘김지대’로 최초로 고증한 뒤 창건 시기를 1240년으로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안진이 재건한 해는 1323년으로 보았다. 김범수(「축석루 창건고」, 『진양문화』 4호, 진양문화원, 1993)는 박경원과 마찬가지로 창건자를 김지대로 내세우고서 김지대와 안진이 진주 목사로 부임한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창건은 1241년, 재건은 1322년이라 하였는데, 이 주장은 진주 시사나 각종의 안내문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본고도 이 견해를 따랐다.

- 12) 안진은 자찬한 「함벽루기」(『동문선』 권68)에서 “其後五年<1322>, 迺出倅晉陽, 又登龍頭寺壯元樓.”라 하여 용두사의 장원루에 등립한 사실만 서술하였다.
- 13) ‘壯元樓’의 명칭은 안진(「함벽루기」), 이곡(「送禹祭酒出守晉州」, 『가정집』 권15 “晉邑風流冠嶺南, 狀元樓下水如藍.”), 이색(「有感」 첫째 수, 『목은집』 권30 “何處江山爲第一, 嶺南聞有壯元樓.”), 하륜(「축석루기」), 윤희인(「次佔畢齋矗石樓韻」 다섯째 수, 『뇌계집』 권2 “只有壯元樓上月, 年年曾得幾回圓.”) 등 몇몇 작품에만 등장하고 대부분은 축석루로 나타난다.
- 14) 하륜, 「축석루기(1413)」, “使鄉僧眞香龍頭寺者端永, 幹其事. 余以此聞于上, 得蒙下旨勿禁. 歲壬辰冬十二月, 判牧事權公衷至, 與判官朴施絜, ---越明年(1413)春二月, 修築江防, 分民作隊, 隊各一堆, 以除田里積年之患, 不十日而畢. 乃於是助其不給. 召集遊手者數十輩, 俾勤其力, 至秋九月而告成.”
- 15) 하수일, 「축석루중수기(1583)」(『송정집』 권4) “矗石, 晉之名樓也---厥後連爲焚蕩, 廢興無常. 至弘治四年辛亥(1491), 慶侯紘與其判官吳致仁又重修.”
- 16) 진주목사 경임은 1489년 축석루에서 조위, 오치인, 김일손 등 31명의 사람들이

등이 기울어져 그대로 지탱할 수 없어 접빈하거나 연회를 베풀 때는 객사를 빌려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하여 목사 申黈(1530~?)이 1583년 2월 관찰사 柳塏과 누각을 새롭게 하되 옛날 규모보다 크게 할 것을 상의한 뒤 판관 김원룡과 협력하여 대대적으로 중수하고는 이 해 4월에 낙성식을 거행했다.¹⁷⁾

그러다가 5년 정도 경과했을 때 비가 셀 정도로 축석루에 허물어진 곳이 생겨났지만 보수되지 않은 채로 있다가,¹⁸⁾ 1593년 6월 전투로 진주성이 함락될 때에는 남장대인 축석루의 일부가 훼손되는 병화를 입었다. 당시 축석루가 전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주성 함락 당시를 서술한 관찬의 왕조실록이나 사찬인 류성룡의 전란 체험 일기를 보면 축석루가 불탔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고,¹⁹⁾ 둘째 전란이 끝난 2년 뒤 축석루를 방문한 이순신 장군도 축석루가 전소되었다고

친목을 도모한 ‘金蘭契’를 주관하였고(김일손, 『晉陽修禊序』, 『탁영집』 권2 참조), 이보다 앞서 李陸은 1462년 축석루에서 ‘續蘭亭會序’를 열어 신진 사류들이 도의로 교유한 바 있다(이륙, 『續蘭亭會序』, 『청과집』 권2 참조).

- 17) 하수일, 『축석루중수기』 “今九十有三載, 歲月既久, 棟絕柱欹, 不克以居. 由是凡大賓旅大宴遊, 常寓于客舍. --- 及至我候, 與方伯柳公謀新斯樓, 克恢舊規, 時萬曆十一年癸未(1583)春二月也. --- 是歲夏四月, 工既訖功, 乃八日己未, 方伯及我候率僚屬賓士, 登茲以落. --- 申侯西原人, 名黈, 字聖與, 判官金公元龍, 相協力以成.” 현재 축석루 현판에는 기문을 1583년 봄 2월에 썼다고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볼 때 2월이 아닌 여름 4월이다.

- 18) 1586년부터 1592년 8월까지 6년간 진주목사를 지낸 崔崧은 진주에 와서 반년이 다 되도록 번다한 공무로 축석루가 허물어져 비가 세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고 했다(『간이집』 권2, 『天城鎮定遠樓記』 “今于晉且半年, 繁冗百不一剔, 弊瘼百不一祛. 坐席尙不暇整, 況其外乎. 任蠹石壤漏, 非余素也.”)고 했는데, 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각이 허물어지게 된 까닭을 밝히지 않았다.

- 19) 『선조수정실록』 권27(26년<1593> 6월 갑신조)에 “김천일이 최경회와 고종후 등과 함께 불을 질러 자살하려 했다. 적이 곧 축석루에 올라오자 그의 아들 김상건과 최경회·고종후·양산숙 등과 함께 북쪽을 향해 두 번 절하고 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千鎰與慶會高從厚等---命放火欲自燒, 賊卽登樓, 千鎰與其子象乾及慶會·從厚·梁山瑋等, 北向再拜, 投江以死.)”라 하였고, 류성룡의 『징비록』 권2에 “김천일이 축석루에서 최경회와 손을 붙잡고 통곡하더니 강물에 뛰어들어 죽고 말았다(千鎰在蠹石樓與崔慶會, 攜手痛哭, 赴江死.)”라는 기록이 있다.

하지 않았으며,²⁰⁾ 셋째 논개가 의암에서 투신할 때 왜적들이 모여 전승 축하연을 베푼 장소가 바로 축석루이었으며, 넷째 정식의 기문에 축석루가 난리 때 흉하게 탔지만 다행히 허물어지는 근심을 면했다는 표현이 있고.²¹⁾ 다섯째 1603년에 마산에 있던 경상우병영을 진주성 안으로 옮겨 설치한 뒤 병사 겸 목사 李守一(1554~1632)이 진주성을 重築할 때 전란으로 무너진 부속 누각을 중건하면서도 정작 본루인 축석루는 그대로 두었다. 이는 축석루가 진주성 함락 때 시급히 중수해야 정도로 심하게 파괴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임란 당시 부분적으로 훼손되었던 축석루가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은 가속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병사 南以興(1576~1627)은 대대적으로 복구할 필요성을 느껴 1617년 7월 축석루의 상량식을 갖고 1618년에 중수를 완료하게 되었다.²²⁾ 그는 당시 김시민 장군의 사적비를 세우고, 북장대와 동장대(일명 대변루)를 중건하는 등 진주성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세월이 제법 흐른 뒤 안절사로 진주에 온 경상우병사 李台望은 축석루가 이미 황폐해진 것을 안타깝게 여겨 1724년 한가한 틈을 이용해 우후 박황과 함께 기울어지고 썩은 기둥과 난간을 교체하고, 벗겨져 흉하게 된 단청을 새롭게 보수하였다.²³⁾ 또 60여년이 지난

20) 이순신, 『난중일기』 <1595년 8월 23일조> “晩余與金應瑞, 同到礮石, 閱其壯士敗亡處, 則不勝慘痛.”

21) 정 식, 「축석루중수기(1725)」, 『명암집』 권4 “惜乎, 奧以壬辰兵燹之間, 幸免於凶炬蕩殘之患.”

22) 이광윤, 『양서집』 · 「연보」 “丁巳(1617)七月, 撰「礮石樓重修上樑文」文逸不收” 참고로 여기서 산일되었다고 한 상량문은 성여신의 『진양지』 권1에 수록되어 전한다.

성여신, 『진양지』 권1<관우> · 축석루 “癸巳城陷爲賊所焚, 至戊午(1618)兵使南以興重建.”

23) 정 식, 「축석루중수기」 “歲甲辰(1724)月正之日, 兵相國李公台望, 按節以南, 鯨波不興, 鈎帳無事, 惟以修舉弊墜爲務, 而深惜斯樓之頽破, 與虞侯朴公瓚, 鳩財畜力, 同功運智, 棟梁板檻之腐黑撓折者, 青黃赤白之漫漶不鮮者, 無不易而新之.” 그리고 이태망은 최진한의 후임으로서 1723년 8월부터 1725년 5월까지 우병사로 재직했다. 『조선왕조실록』 · 「경종실록」 1724년 2월 4일조를 보면 그는 축석루

1786년 봄에 병사 金廷鉉이 기울고 닳아 보기에 좋지 않던 누각을 비로 소 개수한 바 있다.²⁴⁾ 그 이후 100년이 된 시점에는 축석루가 무너지고 썩어 비가 새는 등 자연 훼손의 상태가 심각하였는데, 당시의 병사 鄭騏澤이 이를 개탄하여 1887년에 진주성과 함께 중수하였다.²⁵⁾

축석루는 구한말을 거쳐 일제강점기에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1948년에는 국보로 지정되었고, 1950년 9월 1일 북한군의 거점이 되자 아군이 폭격하는 바람에 완전히 소실되는 비운을 겪었다. 1956년 진주고적보존회가 발의하여 관민의 협조와 국가의 후원에 힘입어 1960년 2월에 준공하였고, 낙성식은 이해 10월에 개최했다. 당시 대들보는 강원도 설악산에서, 30개에 달하는 주춧돌은 창원의 명곡산에서 가져왔다고 한다.²⁶⁾ 현재도 외부에서 보면 수면 위의 돌벼랑층→수목층→성벽층→누각 1층→누각 2층을 합하여 5층이 되는²⁷⁾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상에서 축석루는 고려 중엽 창건된 이후 아홉 차례의 중수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견해와는 다른 것으로 1786년과

를 세울 때 일을 무리하게 추진한 일면도 나타나는데, 여하튼 이해에 축석루를 중건한 것으로 보인다.

24) 김기찬, 「南征錄(1786)」(『동국유고』 권2) “兵相[金廷鉉]言, 矗石采色, 年久頽剥, 見甚慨然, 故今(1786)春始爲修改. 而先輩題詠亦次第揭之, 而其中鶴老絕句, 誤在西楣, 故特表而揭之於正面, 次於退老題詠之下云云.”). 이때 축석루 제영시를 차례로 내걸면서 서쪽 문미에 있던 김성일의 삼장사시를 정면으로 옮기되 퇴계의 제영시 아래에 걸었음을 알 수 있다.

25) 조성가, 「涵玉軒重修記(1888)」(『월고집』 권13) “今節度使鄭公騏澤, 莅是營三世矣. ---一日, 輕裘緩帶, 携僚佐, 伴地主, 徇城登樓[矗石樓], 而嘆曰 ‘往在丙子(1876), 余以多大符, 觀家君, 於是營暇日, 陪家君, ---今我之來, 豈偶然哉, 於焉十稔間, 圯者就夷, 滲者就朽, 噫, 是, 吾責也. ---然吾既修城與樓[矗石樓]’---役始於丁亥[1887]中秋翌年三月告訖云.”. 조성가는 함옥헌을 중수하기 시작한 때는 1887년 가을인데, 이 당시 성과 함께 축석루를 이미 중건하였다고 했으므로, 축석루의 중건은 1887년에 마쳤음을 알 수 있다.

26) 국가기록영상DB “축석루 재건용 거목 운반”(1959.4.26, 한국정책방송원), 류원준의 「축석루중건상량문(1959)」(『정재집』 권4), 성환혁의 「축석루중건기(1960)」(『우정집』 권3), 『축석루지』 등 참고.

27) 강희근, 『진주팔경』, 지식산업사, 2007, p.36.

1887년의 중수 기록의 추가 발견은 1724년 이후 1950년까지 무려 이백년의 공백 기간을 해명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앞으로 새로운 자료가 찾아질 경우에는 공극을 더 채울 수도 있다. 그리고 임진란 때 축석루가 대부분 전소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이제까지 살펴본 축석루 본루의 연혁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창건 중수	중건 중수 중수	중수 중수 개수 중수	중건
1241-1322-1379-1413-1491-1583--1593--1618-1724-1786-1887-1950-1960			
전소	일부 훼손		전소

2) 부속 누각의 존속 실태

한편 축석루는 본루 외에 여러 속루를 거느렸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처음으로 주장하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고건축의 연구를 포함해서 어디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 부속 누각의 존재에 관한 정보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가> 쌍청당은 축석루 서쪽에 있다. [신증]능허당은 축석루의 東閣이다.---청심헌은 능허당의 동쪽에 있고, 임경헌은 축석루의 西閣으로 목사 이원간이 건립하였다.(雙淸堂在矗石樓西偏. [新增] 凌虛堂即矗石樓之東閣. ---淸心軒在凌虛堂東, 臨景軒即矗石樓之西閣, 牧使李元幹建.)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0 · 「진주목」

<나> 동쪽의 것을 청심 · 함옥이라 하고, 서쪽의 것을 관수 · 쌍청이라 하였다. 이 누각들은 축석루에 공손히 읊하는 형국인데, 미천한 사람이 존귀한 어른을 뵈옵는 것과 같다.(東爲淸心 · 涵玉, 西爲觀水 · 雙淸, 皆拱揖斯樓, 若賤幼者之朝尊貴也.) - 하수일, 『송정집』 권4 · 「축석루중수기」(1583)

<다> 함옥헌은 축석루의 東閣으로 『승람』에는 능허당이라 했는데,

언제 지금의 이름[함옥헌]으로 개칭되었는지는 모른다. 누각의 칸 수는 예전에 비해 배를 더했다. 관수헌은 축석루의 西閣으로 목사 이원간이 건립하였는데, 전란을 겪은 뒤 폐하여 복고되지 않았다. 청심헌은 함옥헌의 동쪽에 있고, 병사 이수일이 건립한 것인데, 옛 규모에 비해 조금 웅장하였다.---쌍청당은 관수헌 서쪽·관아의 남쪽에 있었는데, 전란을 겪은 뒤 지금까지 폐한 상태이다.(涵玉軒卽矗石樓之東閣. 『勝覽』稱凌虛堂, 不知何時改今名. 與樓并間架之數, 倍增舊制. 觀水軒卽矗石樓之西閣, 牧使李元幹建, 經亂後廢而不復. 清心軒在涵玉軒東, 兵使李守一所建. 比舊制稍壯.---雙清堂在觀水之西·公廚之南, 經亂今廢.) - 성여신, 『진양지』 권1·「관우」(1632)

<라> 누각의 동쪽에 능허당이 있고, 함옥헌이 있다.---계사의 난 때 왜구가 불태웠다. 뒤에 중건했지만, 쌍청당과 임경헌은 끝내 복고되지 않았다고 한다.(樓東有凌虛堂, 有涵玉軒.---癸巳之亂, 倭寇燒之. 後雖重建, 而雙清堂·臨景軒終不能復古云.) - 김도수, 『춘주유고』 권2·「남유기」(1727)

<마> 쌍청당은 축석루 서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한 상태이다. [新增] 능허당은 축석루의 東閣으로 중건 때 함옥헌으로 고쳤다.---청심헌은 지금 폐한 상태이고, 임경헌도 지금 폐했다.(雙清堂在矗石樓西偏, 今廢. [新增] 凌虛堂卽矗石樓之東閣, 重建改爲涵玉軒,---清心軒, 今廢. 臨景軒, 今廢.) - 『여지도서』·「경상도 진주」(1757~1765)

<바> 누각은 아래로 두른 것이 모두가 축석이므로 그 이름을 지었다. 동쪽으로 함옥정이 있는데, 누각과 처마가 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의기 논개의 사당이 있다.(樓底遶壁皆矗石, 故名焉. 東有涵玉亭, 與樓連簷. 西有義妓論介之廟.) - 송병선, 『연재집』 권21·「단진제명승기」(1872)

<사> 능허당은 축석루 동쪽 누각으로 무오년에 잇달아 건립되었고, 이름을 고쳐 함옥헌이라 했다.(凌虛堂, 卽矗石樓東閣, 戊午連建,

改爲涵玉軒.) - 정광현, 『진양지속수』(1927)

근거로 제시된 위의 글들은 축석루가 1593년 계사 전란이 있기 전까지는 서쪽으로 본루의 ‘西閣’인 임경현과 그 곁의 쌍청당, 동쪽으로는 본루의 ‘東閣’인 능허당과 그 곁의 청심헌을 거느린 거대한 건축물임을 보여주고 있다.²⁸⁾ 그리고 동서의 여러 부속건물이 축석루 본루를 향하여 공손히 읊하는 자세로 짜임새 있게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글<나>). 아울러 본루를 ‘尊貴’에, 좌우의 건물을 ‘賤紡’에 비유하여 누각 사이의 위계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었다. 바로 축석루가 본루가 되고, 나머지 동서의 여러 건물은 본루에 딸린 누각임을 알려준다. 이는 15세기 중엽 이후 중수 과정을 거치면서 능파당과 침류당을 익루로 거느려 웅장미를 더한 밀양 嶺南樓의 건물의 배치 구조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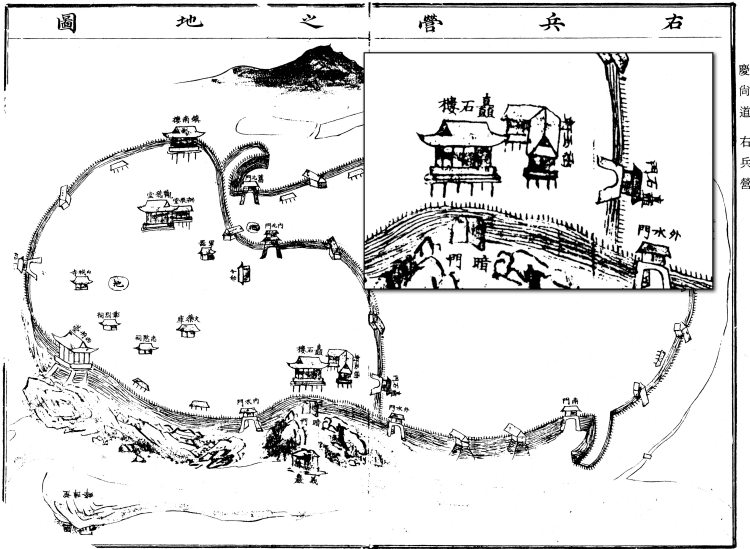
이어서 각 부속 건물의 연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본루의 서각인 雙淸堂은 가장 먼저 건립된 부속 누각으로(글<가>),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편찬 시기를 고려하면 적어도 1481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짐작되고, 이후로 계속 존재하다가²⁹⁾ 1593년 2차 진주성 전투 때 소실되었다(글<다><라><마>).

그리고 臨景軒은 이원간이 진주목사로 재직할 때인 1523년경 세운 것으로(글<가><다>), 나중에 觀水軒으로 개칭되었음을 알 수 있다(글

28) 축석루의 부속 누각을 제영시의 시제나 시구에서 그냥 ‘小軒’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언적의 「次臺石小軒韻」(『회재집』 권3), 이로의 「小軒跨碧凸澄江」(「晉陽淸心軒次金藥峯克一韻」, 『송암집』 권1) 시구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한편 성현이 1493년 7월 경상도 관찰사로 재직할 때에(「虛白堂先生文戴成公行狀」, “六年<1493>七月. 特拜慶尙道觀察使”) 지은 시에 ‘萬指堂」(「次晉州臺石樓韻」, 『허백당집』 권6 “萬指堂中歌管脆, 一雙樽外舞衫垂.”)이 등장한다. 이는 부속 누각의 하나로 짐작되는데, 어떤 것을 지칭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29) 배신(1520~1573)의 「臺石樓序」(『낙천집』 권1)에 “朝飡淸心之玉露, 夕宿江天之雙淸.” 구절에 쌍청당의 표현이 있고, 김록이 호송관에 차출되어 활동할 때인 1577년 가을에 지은 쌍청당을 제재로 한 「晉州雙淸堂遇裴同年晦甫應襲」(『백암집』 권1) 시가 있다.

<나><다>). 쌍청당과 함께 1593년 소실된 이후 끝내 복구되지 않음으로써(글<다><라><마>) 이 이후로 서쪽 누각 모두가 자취를 완전히 감추고 말았다.



그림<1> 「진주목 우병영 지도」(20.5×31.0cm)인데, 축석루 동쪽으로 곧장 이어진 곳에 ‘涵玉軒’의 존재를 뚜렷이 그려놓았다(오른쪽 위 부분 확대). 이 지도는 1757~1765년에 편찬된 『여지도서』의 ‘右道兵馬節度營’의 첫 면에 수록되어 있다.

축석루의 동각인 凌虛堂은 1498년에 건립되었고,³⁰⁾ 나중의 중건 때

30) 인용 글<사>에서 말한 ‘무오년’에 근거하였는데, 이 해를 1498년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능허당은 1530년 증보를 완료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처음 등장하므로(글<가>), 『동국여지승람』이 처음 편찬된 해인 1481년부터 1530년 사이로 한정된다. 그리고 김안국이 1517년 경상도 관찰사 때 지은 시의 제5행 ‘伴吟東閣賴梅枝’(『戲詠蠡石軒前小梅』, 『모재집』 권1)에 ‘동각’이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이 시의 제재가 축석루의 소헌인 동각임을 볼 때, 여기서 동각은 바로 능허당을 지칭한 것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1498년의 창건 시점을 뒷받침한다.

涵玉軒으로 개칭되었다(글<나><다><마><사>).³¹⁾ 누각의 동쪽 모퉁이에 내건 편액의 명칭 변경은 누각이 넓은 강에 흐르는 옥 같은 강물을 담고 있는 듯한 모습에서 유래되었다.³²⁾ 이후 1593년 계사년 전투에 완전히 불탄 것을 청심헌 중건 때 함께 복구했는데(글<다><라><마>), 함옥헌의 중건 시기를 이렇게 보는 것은 건축구조상 함옥헌 동쪽에 있던 청심헌보다 나중에 복구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란 전에 비해 오히려 건물의 칸 수가 배나 더할 정도로 큰 규모였다(글<다>). 또한 함옥헌은 18세기에도 축석루의 대표적인 부속 건물로 인식되었고(그림 <1>), 19세기 때의 모습을 보면 누각의 처마가 본루인 축석루의 동쪽과 맞게 배치된 구조임을 알 수 있는데(글<바>). 계사년 전투로 불타기 전에도 아마 이런 형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진주목사 趙弼永이 1888년 3월에 병사 정기택의 권유로 다시 중수했으며,³³⁾ 그 뒤 속루로서는 유일하게 최후까지 존속하다가 일본인에 의해 1906년경 함옥헌이 완전히 헐린 것으로 보인다.³⁴⁾

淸心軒은 능허당의 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글<가>) 건립 시점은

31) 황준량이 1551년에 지은 「次涵玉軒李復古」(『금계집』·외집 권4)에 함옥헌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550년 이전에 개칭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글<라>에서 능허당과 함옥헌을 다른 건물로 표현한 것은 위의 여러 자료로 볼 때 오류임이 명백하고, 글<바>의 함옥정은 함옥헌의 다른 이름이다. 함옥정은 김학순(1767~1845)의 「涵玉亭」(『화서집』 권1) 시도 있는 것으로 보아 19세기에 자주 병칭된 듯하다.

32) 조성가, 「涵玉軒重修記(1888)」(『월고집』 권13) “樓之東角, 扁其軒曰‘涵玉’者, 蓋取其下長江之玻瓈, 萬頃溶漾, 涵蓄之容, 而軒之.”

33) 조성가, 위의 글, “而樓之傍一軒, 若割鴻溝於地主[趙弼永], 則豈不隘哉。——遂應聲而, 對曰‘是役也。’——役始於丁亥中秋, 翌年(1888)三月告訖云。”

『진양속지(1932)』 권1<임관> “趙弼永, 丁亥(1887)來, 己丑(1889)去。○蓮桂齋移建, 惟正堂·涵玉軒重修。”

34) 황현의 『매천야록』 제5권에 실린 광무 10년(1906)의 기록을 참고할 만하다. 이 때 일본인들이 진주의 험한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 석재를 운반해 집을 신축하였고, 오직 축석루만이 우뚝한 채로 보존되었다고 했다. 아마도 이 당시 본루인 축석루만 남기고 함옥헌을 철거한 것이 아닌가 한다.

능허당과 같거나 그보다 약간 뒤일 것으로 생각된다. 계사년에 소실된 것을 이수일이 진주병사 겸 목사로서 1604년에³⁵⁾ 옛 규모보다 조금 웅장하게 함옥헌의 동쪽에 중건하였다(글<다>). 또 약 20년 뒤인 1623년에 불에 탄 적이 있는데, 곧바로 병사 이용해와 신경유가 1625년까지 차례로 이어가며 청심헌의 규모를 새롭게 고쳤다.³⁶⁾ 이 이후 청심헌이 언제까지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757년 이전에 훼손되었음은 분명히 드러났다(글<마>).

이상에서 본 것처럼 축석루는 임진란 전까지만 해도 동각과 서각을 부속 누각으로 거느려 절묘한 위용을 갖추었고, 전란 후에는 동각인 함옥헌과 청심헌만 복구되었으며, 이중 함옥헌 한 채만이 20세기 초까지 본루와 함께 400여 년간 유지되다가 현재에는 본루만 남아 본래의 위용을 잃은 형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축석루 속루의 건립과 훼손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창건	창건	창건	소실	중건	소실	중건	훼손	중수	훼손
1481이전--	1498--	1523---	1593---	1604--	1623--	1625--	1757이전--	1888--	1906
[西閣] 쌍청당			쌍청당						
		임경헌	임경헌						
[東閣]	능허당		함옥헌	함옥헌				함옥헌	함옥헌
	청심헌		청심헌	청심헌	청심헌	청심헌	청심헌		

이처럼 본루와 부속 누각으로 이루어진 축석루의 조형미와 규모미는 제영시의 창작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으므로 부속 누각의 정보에 관하여 객

35) 그의 병사 재임 기간(1603~1605)을 고려하더라도 부임한 첫 해인 1603년에 공사를 모두 마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광윤이 1604년 가을 統營 宣稿御使로서 남쪽에 체류할 때 축석루에 들러 巫山一段雲體의 「晉州淸心軒題詠」(『양서집』 권3)을 지었는데, 이를 근거로 청심헌의 중건 시기를 1604년으로 잡았다.

36) 성여신, 『진양지』 권1<관우>·청심헌 “天啓癸亥(1623)災, 兵使李應辦改舊制重建, 而制度不好, 申景裕時依舊制改作.” 참고로 병사 이용해의 재임기간은 1622~1623년이고, 신경유는 1623~1625년이다.

관적인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축석루는 좁게는 축석루 본루만을 지칭하고, 넓게는 본루의 부속 누각이 존재한 시기에 따라 쌍청당과 임경현, 청심헌과 함옥헌을 포함하여 개념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축석루의 심미적 요소

1) 본루와 부속 누각의 경관

矗石樓가 시문 제재로 등장하게 된 요인은 무엇보다 입지적 조건과 누관의 미적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누각이 위치한 지형의 특징, 누각의 규모나 부속건물, 등립하여 조망하는 아름다운 경치, 누각에 얹힌 일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문 창작의 계기를 부여했다. 축석루의 심미적 요소 중 우선 누관의 입지와 외형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창건 당시의 축석루의 규모와 조망의 경관은 알 수 없지만, 비교적 초기 문헌인 河崙(1347~1416)의 글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누의 규모가 크고 높으며 확 트여서 굽어보면 긴 강이 밑에 흐르고, 여러 산봉우리가 그 바깥에 벌여 있다. 가정집의 뽕나무밭과 삼밭, 高臺의 화훼가 그 사이로 은근히 비친다. 푸른 바위와 붉은 벼랑, 긴 모래밭과 기름진 땅이 그 곁에 이어져 있다. 사람의 기품은 맑고 풍속이 온후하여 노인들은 편안하고 젊은이는 순종하고, 농부와 누에치는 부인은 그 일에 힘을 다하며, 효자와 어진 며느리들은 힘껏 봉양한다. 방아노래는 마을에 연이어 울리고, 장단 맞춘 뱃노래가 벼랑을 따라 퍼진다. 새들이 무성한 숲에서 절로 날고, 물고기와 자라가 해엄치되 그물에 걸릴 위험이 없다.---높은 누각이 비로소 새로워져서 빼어난 경관이 옛날과 같았다.³⁷⁾

37) 하 룬, 「축석루기(1413)」 “樓之制, 宏敞軒豁, 俯臨渺茫, 長江流其下, 衆峯列于

이 축석루는 고려 말 왜구 침입으로 파손된 것을 1413년 판목사 권충과 판권 박시결이 중건하고 난 직후의 모습이다. 크고 높은 누각이 전망이 트인 곳에 입지함으로써 긴 강과 여러 산봉우리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누각 사이로 은은히 보이는 가정집 곁에 바위와 벼랑과 모래밭과 땅이 이어져 있는 광경이다. 그리고 맑은 기품과 온후한 풍속이 있고,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여 인문 질서가 조화를 이루고, 동물도 사람들과 어울려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진주를 묘사하고 있다. 桃源을 연상케 하는 이 풍요로운 세계에 축석루를 새로 세워짐으로써 얻게 된 만족감으로 한층 고무되어 있다. 누각의 이런 모습은 1379년 왜국의 노략질로 소실되기 이전의 것과 유사했을 터인데, 아마 밀양부사 金湊(?~1404)가 1365년 영남루를 개창하기 전 관리를 진주에 파견해 참고한³⁸⁾ 축석루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처럼 누각의 웅장한 규모와 그곳에 창출된 이상적 세계는 제영사에서 두루 제재로 수용되었다. 축석루는 1583년에 진주목사 申黈이 다시 보수하였는데, 이때의 축석루의 모습은 본루와 부속 누각을 온전히 갖춘 구조를 보여준다. 그 구체적인 면모가 河守—(1553~1612)의 축석루 기문에 잘 나타난다.

누각의 규모는 다섯 칸이요 대들보가 여섯이며, 너비가 서른여덟 자, 기둥이 모두 쉰 개, 높이가 여덟 자이다. 동쪽의 것을 청심·함옥이라 하고, 서쪽의 것을 관수·쌍청이라 한다.---옛 규모는 아래 위의 기둥이 자못 나온 편이고 굵지 못했으나, 지금은 높고 웅장하다.---기둥 위 方木과 대들보와 서까래는 매우 가지런하고 견고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은 예전보다 백배나 나왔다. 규모가 더욱 참신하고 빼어난 경관으로

外. 閭閻桑麻, 臺榭花木, 隱映乎其間. 翠巖丹崖, 長洲沃壤, 相接于其側. 人氣以清, 俗習以厚, 老者安, 少者趨, 農夫蠶婦, 服其勤, 孝子慈婦, 竭其力. 春歌連巷而俯仰, 漁歌緣崖而長短, 禽鳥鳴翔, 能自知於茂林, 魚鼈游泳, 亦無危於數罟. 物於一區而得其所者, 俱可觀矣. ---危樓聿新, 勝觀如舊.”

38) 김 주, 「영남루증수기」(『신증동국여지승람』 권26, 「밀양도호부」〈누정조〉) “余乃使吏致之, 語以其故, 令遣晉陽使圖矗石之制..”

광채를 더하니 산은 더욱 높아 보이고 물도 더욱 맑게 보인다. 무릇 누각은 크고 높으며 앞이 툭 트이고 물이 가득히 넘쳐 흘러감이 해와 별이 비치는 것 같다. 임하여 비바람 치는 것을 굽어보면 마음이 깨끗하고 산뜻해진다. 눈으로 피하고 귀로 피하여 빼어난 것에도 기이함을 본뜨고 교묘함을 다투어 바쳤으니, 모두가 한층 개벽하는 것 같다.³⁹⁾

위의 글은 축석루의 규모와 배치 구조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앞의 하륜의 기문과 마찬가지로 누각의 전체 이미지를 ‘宏敞軒豁’로 표현하되, 누각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매우 특이하다. 누각의 규모가 5칸, 대들보가 여섯이고, 너비가 38자이며, 50개의 상하 기둥과 8자 높이로 건축된 거대한 구조임이 비로소 드러난다. 현재 정면 5칸, 측면 4칸, 樓上柱 26개, 樓下柱 30개의 팔작지붕의 2층 누각 구조는 멀리로는 여기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본루의 기둥을 높이고 굽게 하였고, 방목과 대들보와 서까래를 견고하게 중수함으로써 규모가 참신하고 빼어난 경관이 더욱 새롭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축석루가 본루 외에 부속 누각으로서 청심헌과 함옥헌, 관수당과 쌍청당이 동서로 각각 배치되어 건축 구조의 예술성과 규모미가 강화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누각에 등립하여 보면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확 트인 조망에서 자연스레 생겨나는 독특한 미적 흥취는 시인묵객들이나 관리들에게 유람의 동기와 作詩의 계기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문인들에게 음영의 제재로 사로잡았던 축석루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퇴락되었고, 임진란 때에는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 1604년에 축석루의 동각만 복구되었고, 본루는 1618년에서 이르러서야 완전히 중수될 수 있었다. 그때의 본루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權克中(1585~1659)이 지은

39) 하수일, 『축석루중수기(1583)』, “樓制五間, 棟凡六, 濶三十有八尺, 柱凡五十, 高一仞. 東爲清心・涵玉, 西爲觀水・雙清. ---舊制上下柱頗痺弱, 今則既高且壯. ---樽櫨梁桷, 峻整周重, 堅固而不可動者, 百倍於前. 制度聿新, 勝觀增光, 山益高水益清. 凡宏敞軒豁, 浮遊瀾漫, 回環日星, 臨瞰風雨, 粲然冷然. 目謀耳謀之勝, 爭效奇獻巧, 咸若有加闢之者.”

아래의 제영시를 통해서 살필 수 있다.⁴⁰⁾

축석루가 차지하고 있는 꼭대기에/날아갈 듯한 누각이 붉은 절벽 위에 세워져/굽어보면 맑은 강물이 흐르고/누각 모서리는 물 밑에 거꾸로 비치며/금벽 칠한 단청에 물속의 규룡이 놀라고/수정 같은 발은 처마 끝에 매달려 있으며/비가 세차게 내리면 기와에 봇도랑 생기니/이것은 거대한 집의 자태라/

위 시는 70운 140행의 五言 장편의 일부를 인용한 것인데,⁴¹⁾ 병사 南以興이 절벽 위에 새로 중건한 축석루의 외관 전체를 묘사한 부분이다. 누각의 모서리가 거꾸로 비쳐 보일 정도로 맑은 강물이 인접해 멀리 흘러가고, 단청은 물 밑의 규룡마저 놀랄 정도로 화려하며, 처마에 처져 있는 발과 폭우에 골이 만들어지는 지붕 기와의 모습 등은 거대한 누각이 아니면 획득하기 어려운 장관이다. 임란 전에 비해 오히려 넓고 화려함이 배가되었다고⁴²⁾ 평가될 만큼 새로 복구된 축석루의 위용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이러한 본루의 중건은 패전의 흔적 지우기를 통한 민족적 자존심의 고취라는 의의가 있다. 진주를 황폐화시킨 왜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목숨을 바쳐 순절한 영웅의 충혼과 의백, 예전과 마찬가지로 회복된 강산의 아름다운 풍물 등은 임란 후 창작된 제영시의 주된 주제로 자리 잡는 계기를 부여했다. 다르게 말하면 시적 재재로서 축석루의 성격이 더욱 심화됨으로써 다각도로 작품 창작을 유도했다는 의미이다. 이 이후 광복 전까지 세 차례의 중건이 있었는데, 승경과 애국 의지가 통합된 이

40) 그림<2>는 19세기 중엽의 「진주지도」이지만 이 당시 중건된 축석루의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

41) 권극중, 「蠡石篇爲南兵相作七十句」(『청하집』 권1) “蠡石居上頭，飛樓架赤壁，俯瞰澄江流，舳舻倒水底，金碧驚潛虬，水廉挿簫吻，雨瀑生瓦溝，斯其大厦態。”

42) 성여신, 『진양지』 권1<관우>·축석루 “至戊午(1618)兵使南以興重建，宏豁壯麗，比前增倍。”

미지로서 적극 수렴되었다.

축석루는 본루 못지않게 부속 누각이 존재함으로써 문인들에게 창작 의욕을 한층 더 자극시켰다. 본루의 西閣인 쌍청당과 임경헌은 임란 때 소실되어 되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제재로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부속 누각 중 가장 먼저 건립된 雙淸堂을 시제로 내세운 작품을 통해 임란 전의 형태를 다소나마 미루어 볼 수 있다.

굽은 성가퀴 긴 들판에 다다랐고	曲堞臨長野
층층 난간 먼 하늘에 튀어 나왔네	層欄出遠空
강은 차가운데 달은 떠 오르고	江寒能得月
산 가까워 절로 바람이 이는도다	山近自生風
꿈결에 삼청 세계 위에 오르니	夢接三清上
마음은 온 세계에서 노니는 듯	魂遊萬界中
낭랑히 읊으니 가을날 이미 저물고	朗吟秋已夕
내일이면 바닷가 산 동쪽에 있으리라	明日海山東

(김록, 「晉州雙淸堂遇裴同年晦甫應裴」, 『백암집』 권1)

위의 시는 김록(1540~1616)이 1577년 가을 호송관으로 차출되어 진주의 쌍청당에서 과거 급제 동년인 배응경을 만나 지은 제영시이다. 쌍청당의 입지 성격과 건물 형태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굽은 성가퀴가 긴 들판을 따라 있고, 층층으로 된 난간이 하늘에 돌출한 모양이다. 강달과 산바람의 경치를 감상하는 행위를 마치 삼청의 신선 세계에서 유람하는 것에 비유하였다. 이를 통해 쌍청당이 축석루 본루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臨景軒도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해보지만 이를 제재로 한 시를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

그리고 축석루의 東閣인 淸心軒은 규모와 조망의 경관미로 진작 제영의 대상이 되었는데, 姜渾(1464~1519)이 지은 시가 축석루의 부속 누각을 제재로 한 최초의 시가 된다.

외로운 배 바람 따라 가다 맑은 강에 대니	孤舟風定泊清江
못 그림자 고요한데 아름다운 창 흔드네	潭影沈沈搖畫窓
전체 두른 긴 숲에 얇은 안개가 비껴있고	一帶長林橫薄霧
석양에 갈매기 짝을 지어 내려 오네	夕陽鷗鷺下雙雙

(강혼, 「淸心軒」, 『목계일고』 권1)

위의 시는 청심헌을 제제로 삼았지만, 정작 제제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생략되어 있다. 반면에 청심헌 주위의 풍경에 대한 세부 묘사가 비교적 자세하다. 화자는 유유자적하게 유람을 즐기다가 누각 아래에 배를 대고 주위의 경물을 관찰하였다. 석양 무렵의 고요한 강물에 청심헌의 창문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강 전체를 두르고 있는 무성한 숲에는 얇은 안개가 끼어 있으며, 갈매기들은 잠자기 위해 짝지어 물가로 내려오는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 강물에 창문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한 것은 청심헌이 높은 언덕 위에 건축되었음을 암시하는 시적 기교이다. 한 폭의 그림같은 광경은 근경과 원경의 각도에 따라 관찰된 세부들이다. 이 시는 진주의 승경을 널리 알리는 명작으로 평가받았다.⁴³⁾ 그리고 柳景深(1516~1571)은 강혼의 시를 차운한 세 편을 포함하여 일곱 편의 차운시를 연작했으며,⁴⁴⁾ 李魯(1544~1598)도 강혼 시를 차운하여 3편을 지었다.⁴⁵⁾

앞에서 청심헌은 임진란 때 전소된 것을 병사 이수일이 1604년 진주성을 정비할 때 함께 복구했다고 하였는데, 중건 당시의 경관은 성여신의 상량문에⁴⁶⁾ 잘 묘사되어 있다.

43) 성여신, 「淸心軒重建上樑文(1604)」(『진양지』 권1<관우>·청심헌) “夕陽鷗鷺下雙雙, 宛然姜東阜(渾)瓊韻, 敢採一州之善頌, 助舉六偉之短詞.” 이 상량문은 그가 생원 시절에 병사 이수일의 요청을 받고 지은 것이다.

44) 류경심, 「次淸心軒韻」(『구촌집』 권1)

45) 이 로, 「晉陽淸心軒次金藥峯克一韻」(『송암집』 권1). 시제는 김극일의 시를 차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운은 강혼의 작품이다.

46) 성여신, 「淸心軒重建上樑文」, “勢鄙曩日之制, 非臨斷岸, 而暢觀瞻快, 今日之議. 是規矩準繩之合, 則方圓平直之從, 宜匪麗匪華, 不陋不侈.”

형세가 예전의 규모가 모자란다고 하고는 깎아지른 벼랑에 세우지 않으면서도 트임이 있도록 하였고, 굽어보면 마음이 상쾌해지는 멋이 있다. 오늘날의 의논대로 하되 규거와 준승에 맞게 하고, 방원과 평직에 알맞게 하였다. 화려하지도 않고, 누추하거나 분수에 넘치지 않는다.

누각의 규모는 예전에 비해 약간 컸고, 멀리 굽어보면 앞이 툭 트이게 하여 마음이 상쾌해지는 풍류의 멋이 나도록 입지를 최대한 고려했으며, 건축물의 안정성도 감안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화려하지도 누추하지도 분수에 넘치지 않도록 누각을 건립한 것은 전쟁이 끝난 직후라서 백성들의 노동력과 조세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배려라 하겠다. 이처럼 전쟁의 참담한 기억을 지움으로써 명승지로서 진주의 위상을 되찾고 민심을 결집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리하여 청심헌은 유람과 창작의 무대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춘 셈이다. 중건 직후에 李光胤은 새로 회복한 청심헌 주변의 풍경을 노래하였고,⁴⁷⁾ 成如信은 여러 관리들이 지은 청심헌 시를 소개하였으며,⁴⁸⁾ 1617년 축석루 중수 상량문을 지은 權克中은 당시 그곳에서 잘 때 들려오는 낭랑한 풍경 소리에⁴⁹⁾ 깊은 인상을 받아 시를 지은 바 있다.

그리고 축석루의 동쪽 처마와 잇닿게 건축된 涵玉軒은 청심헌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부속 건물이었는데, 임란 전의 경관은 제영시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黃俊良(1517~1563)이 1551년에 지은 아래 시는 함옥헌에 등립한 뒤 관찰한 풍경의 아름다움을 충실히 보여준다.

47) 이광윤, 「晉州淸心軒題詠」(『양서집』 권3) 2수 중 첫째 수 일부. “風月還多事, 江山轉有情, 坐看霞鷺弄秋晴, 詩思十分淸.”

48) 이광윤(1604, 어사)을 비롯하여 韓浚謙(1605, 都元帥), 柳永詢(1605, 관찰사), 黃謹中(1607, 都事), 鄭賜湖(1607, 관찰사) 등인데, 이들은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던 중 당시 중건된 淸心軒을 둘러보고 여러 편의 시를 남겼다. 이중 한준겸의 청심헌 시는 그의 문집에는 「矗石樓下灘泛舟題絕壁」(『유천유고』) 시제로 되어 있다.

49) 권극중, 「矗石篇爲南兵相作七十字」(『청하집』 권1) “再宿淸心閣, 風錚響琅璆”. 시는 축석루를 제재로 하였고, 시의 내용으로 볼 때 청심각은 청심헌과 동일한 누각으로 보인다.

넓은 하늘에 구름 사라지고 밤기운 맑아	天豁雲消夜氣清
고요한 가운데 시흥이 우연히 솟아나네	靜中詩興偶然生
어떤 사람의 마음 속이 저처럼 맑더냐	何人襟宇清如許
갠 달이 청정한 못에 위 아래로 밝도다	霽月澄潭上下明

(황준량, 「次涵玉軒李復古」, 『금계집』·외집 권4)

화자는 함옥헌에서 구름이 없는 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밤의 맑은 기운을 마시면서 閑情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 인적이 고요한 절대 고독의 공간에서 시적 감흥이 절로 솟아나게 됨을 고백하고 있다. 함옥헌의 공간적 특징이 고요함에 있고, 맑은 밤기운을 호흡한 화자의 마음도 함께 청정하며, 광활한 하늘에 밝게 떠오른 달이 강물의 수면에 비쳐 더욱 맑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작품을 지배하는 이미지는 ‘淸’과 ‘澄’이고, 이 청정함의 미적 세계는 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함옥헌도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복구되었는데, 당시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 더 확장되었음을 앞에서 거론하였다. 임진 이후 함옥헌을 등림한 뒤에 역사성을 가미하여 새로운 시적 경험을 반영한 경향의 시도 생겨났으니, 金學淳(1767~1845)의 제영시는 좋은 예가 된다.

영웅의 호수 위로 물결 일어 모래 씻기고	英雄湖上浪淘沙
의기의 바위 앞에 원통히 꽃이 지네	義妓巖前怨落花
과거 백년 일이 꿈처럼 스쳐 지났다만	往事百年如夢過
온 강에 비친 연월이 어가에 이어져 있네	一江烟月屬漁家

(김학순, 「涵玉亭」 둘째 수, 『화서집』 권1)

시제의 함옥정은 함옥헌의 이칭임을 앞에서 말한 바 있는데, 전란 이후 새로 복원된 누각이 중층적 의미를 내포한 제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모래를 씻어내는 호수의 물결에 영웅들의 충혼이 깃들어있고, 바위 앞에 떨어지는 꽃은 의기의 원한을 품은 것으로 연상해 내었다. 이는 백여 년 전 임진왜란 때 왜적에 대항하면서 성이 함락되자 강물에 투신하

여 충절을 실천한 장수들과 합락 후 왜적을 끌어안고 순국한 논개의 절의를 부각시킨 것이다. 동일 제목의 다른 작품에서 화자는 논개를 ‘水仙’으로, 열 두 기둥에 처진 발은 ‘상죽(湘竹)’ 곧 논개의 원혼이 맺힌 대로 만든 것이라고 상상했다.⁵⁰⁾ 이러한 시적 표현은 논개의 의혼에 대한 절실한 정감이 투영된 결과이다. 결국 함옥헌은 예전부터 청정한 홍취나 거문고를 타며 풍류를 즐기는데 최적의 공간이 되기도 했지만,⁵¹⁾ 임진란 이후에는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충절의 애국 정신을 숭모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특수하게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제재로서의 큰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1888년 함옥헌이 마지막 중수될 때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다.⁵²⁾

위의 사례에서 본처럼 청심헌이나 함옥헌 등 특정한 부속 누각을 제재로 한 것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본루만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감상의 오류를 피할 수 없게 됨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축석루 제영시를 분석할 때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축석루의 부속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경관미가 더욱 부각된 점, 제영시의 시제나 시구에 등장하는 ‘小軒’, ‘東閣’ 등은 축석루의 부속 누각을 지칭한다는 점, 심미적 요소의 강화로 작품과 작가의 양적 증가를 촉매한 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의 심화가 성취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2) 축석루의 논개 사적

축석루 제재는 임진란의 역사성과 결부됨으로써 더욱 의미의 심화를 이루게 된다. 제재의 성격 변화를 대표하는 것은 임진 사적인데, ‘의암’,

50) 김학순, 「涵玉亭」 첫째 수(『화서집』 권1) “江光月色一樓明, 倚遍湘竹十二楹, 坐待水仙清不寐, 瑤琴彈出等虛聲.”

51) 김도수, 「南遊記(1727)」(『춘주유고』 권2) “樓東有凌虛堂, 有涵玉軒. 鄭君[鄭龜寧]曰 此軒最宜月夜彈琴.”

52) 조성가, 「涵玉軒上梁文(1888)」(『월고집』 권14) “涵玉軒水光掣羣革而演漾, 樓影抱魚龍而徘徊——兒郎偉拋東, 麗譙睥睨射噉紅無限, 後人忠義感昇平久矣, 戰塵空.”

‘의암사적비’, ‘의기사’ 등⁵³⁾ 논개의 순국 현장과 관련된 사항은 집중적인 검토의 대상이다. 이중에서 특별히 의암사적비에는 역사적 고증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문제 제기로서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여러 지면을 할애하여 논점의 타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義巖은 2차 진주성전투가 남긴 가장 유서 깊은 사적이다. 원래는 바위가 가파른 절벽 아래에 위치하여 가까이 가려면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이므로 峭巖이나 危巖, 바위가 강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浮巖 등으로 불렸다. 그런데 논개가 살신성인한 순국 처소로 알려지면서 고유명사 ‘의암’이라는 특별한 명칭으로서 영남 사람들에게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의병장 정문부의 둘째 아들인 鄭大隆(1599~1661)이 바위 서쪽면에 ‘의암’을 전서체로 刻字함으로써⁵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의암 명칭이 문헌에 최초로 기록된 것은 吳斗寅(1624~1689)의 「義巖記」이다. 그는 1651년 경상도 都事로서 영남 유생들이 야기한 과거 시험의 소란을 진정시키고 천재지변으로 입은 농작물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경상 우도를 시찰하던 중 진양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이 글을 지었다.⁵⁵⁾ 그가 이해 10월 24일 축석루에 들러 그곳 사람들이 논개의 죽음을

53) 이외에도 임진년 진주성 전투의 순국 영웅인 김시민 장군의 단독 위패를 모셨던 忠愍祠(1607 사액, 1868 韓契로 창렬사에 합사)와 계사년 전투에서 순국한 영령을 배향한 彰烈祠(1595 旌忠壇 축단, 1607 鄭賜湖가 祠宇로 창건한 뒤 사액→중수<1704 洪景濂, 1722 최진한, 1806 趙文彦, 1873 徐曾輔>)가 있고, 선열의 공훈을 기록한 晉州牧使金時敏全城去廟碑(1619, 남이홍<비문은 성여신의 작>)와 蠱石旌忠壇碑(1686, 李基夏<비문은 이민서의 작>) 등의 고적을 들 수 있다.

54) 『진양속지』 권2·「인물」(『국역 진양지』, p.368 참조), 정대룡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형 大榮과 함께 1625년 상복을 입은 채 진주로 이거하였으니(정문부, 『농포집』 권7·「연보」), 의암의 刻字 시기는 1625~1651년 사이로 한정된다. 한편 정대룡은 1617년 오숙의 누이동생에게 장가들었는데, 오두인은 1651년 이전에 이미 고모부의 각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55) 李畬의 「謚狀(오두인)」(『양곡집』 권4 “辛卯(1651)嶺南儒生再亂試場, 朝議擇考官, 有聲望可鎮服人. 於是公自兵曹郎, 出爲慶尙都事, 慰諭戢治兩盡, 其道場屋晏然.”)과 오두인의 「頭流山記」(『양곡집』 권3 “適審災傷巡歷右道會于晉陽.”) 참조. 그는 『(慶尙)道先生案』(국회도서관 편찬, 서울대 출판부, 1970)에 의하면, 1651

슬퍼하며 그 의로운 뜻을 기리기 위해 ‘義巖’ 두 글자를 바위에 진작부터 새겼고, 아울러 강변에 제단을 설치하여 논개의 의혼을 정기적으로 추모하고 있다는 동향도 직접 들었다고 했다.⁵⁶⁾ 오두인은 1632년 김성일의 삼장사시를 축석루 현판에 처음으로 내건 백부 吳翻의 양아들로 나중에 현종의 부마가 되었고, 그의 중부 吳翻은 1645~6년 진주목사를 지냈으며, 정대룡은 바로 그의 고모부였다. 이처럼 논개의 공적 인정에는 순국 사실을 익히 알고 그 정표에 관심이 지대했던 두 가문의 유대가 크게 작용했다고 하겠다. 결국 정대룡의 의암 刻字를 통해서 진주 지역에 전승되던 논개의 절의가 부동의 사실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오두인의 「의암기」는 이를 뒷받침하는 문헌 기록으로서 여러모로 기여했다.

논개 순국 정신의 선양과 국가 차원의 공식화 과정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 義巖事蹟碑의 건립이다.⁵⁷⁾ 1724년 축석루를 중수한 경상우병사 이태망의 후임으로 부임한 崔鎭漢(1652~1740)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논개의 표창을 위해 노력했는데, 그 일환으로 鄭栻(1683~1746)을 위시한 진주 사민과 협력하여 1722년 4월 축석루 경내에 세운 것이 바로 이 사적비였다.⁵⁸⁾ 비석 앞면에는 전서체로 된 ‘義巖事蹟碑銘’

년 8월부터 1652년 3월까지 경상도 도사로 재직했다.

56) 오두인, 「義巖記(1651)」, 『양곡집』 권3 “故後人之哀而義之, 遂刻義巖二字, ---余以辛卯(1651)首冬之既望越八日戊辰, 行到晉陽, 適值昔年陷城之日. 州之人, 例於是日, 設祭江邊以醉義魂云. 余於此尤有所感, 遂書于蠹石樓, 以爲義巖記.”

57) 논개의 순국 인정과 공적 포상의 조치는 진주 士民들에게는 숙원의 과제였다. 유승주의 「진주성의 의기논개고」, 정동주의 『논개』, 김수업의 『논개』 등에서 이를 자세히 다루었다.

58) 金履安, 「家狀(정식)」, 『명암집』 권6·부록 “壬辰之亂, 妓論介殉節於蠹石巖上, 公惜其翳沒, 搜訪名蹟呈官, 樹碑以旌褒之”

『충렬실록』 권1·「의암사적비명」의 끝부분. “崇禎後九十五年壬寅(1722)四月 日立 明庵鄭栻 撰.”

『충렬실록』 권1·「申報備邊司文」 “公私并力, 才豎尺碑於義巖之上, 序以銘之, 俾不至泯滅之歎.”

이 세 문헌을 보면 비석은 최진한과 정식이 주동이 되어 1722년 4월에 건립하였고, 비명은 정식이 지었음을 명시했다.(한편, 「의암사적비명」은 정식의 『명암

의 題額 아래 비석 건립을 주동한 정식이 찬술한 비명을 새겨 놓았다.

이 비명의 병서는 『어우야담』의 일화를 거의 전제한 것이 특징이고, 명문은 4언 격구운의 8행시로 바위와 동격화하여 논개의 절의를 존송하는 뜻을 담았다(사진<1>). 그리고 뒷면에는 정식이 지은 「義巖」시가 음각되어 있다. 최진한은 1721년 2월부터 1723년 5월까지 재직하면서 논개旌表를 위한 진주 사람들의 끈질긴 요청을 받아들여 여러 차례 비변사에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논개의 순국을 입증하기 위해 유력한 객관적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



(解州府志卷之四 藝文志) 義巖之記 (解州府志卷之四 藝文志) 義巖之記 (解州府志卷之四 藝文志)

하여 의암 명칭의 유래를 비석에 새겨 순국 현장에 세우는 방안을 도출해 내었고, 그것을 통해 나라로부터 義妓의 명명과 정려의 포상을 획득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던 셈이다. 그가 실제

비석을 탁본한 뒤 한 벌을 비변사에 보내 논개의 공인 획득에 집념을 보였으나 그의 의도대로 당장 결판은 나지 않았다.⁵⁹⁾ 그렇지만 축석루에

사진<1> 의암 사적을 진주의 명소로 소개한 일제강점기의 사진엽서(진주성내 飯田사적판 발행). 의암사적비의 탁본을 전면에 배치하고 축석루를 배경으로 처리했다. 碑身의 크기는 가로 60cm, 세로 145cm, 두께 15cm이다.

집』에는 「義巖碑記」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59) 1725년 6월 경상좌병사로 다시 부임한 최진한은 이듬해 5월에 논개 공적의 인정을 위해 영조 임금에게 직접 상소까지 하였으나(『조선왕조실록』 영조 2년 5월 16일조), 뜻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부임한 지 2년이 조금 지나서 진주를 떠나고

당당하게 자리 잡은 의암사적비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의창비나 의기비 등의 이름으로 널리 인식되어 논개 순국 사실의 공고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의암사적비는 현재 의암의 북쪽 위 언덕에 정면 1칸, 측면 1칸으로 된 맞배지붕의 비각 안에 보존되고 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곳에 위치했는가 하는 원론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비석이 민간 차원에서 세워진 후 18년이 지나서 하사된 ‘義妓論介之門’ 편액이 비각의 처마에 걸려 있어(사진<2>)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편액이 어떤 용도로 하사된 것인가 하는 문제와 결부된다. 이러한 의문은 의암사적비의 건립 위치와 정려의 별도 존재에 관한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해답을 이준의 『도재일기』과 박태무의 「의기전」,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아우르고 있는 작가 미상의 「진주지도」 등의 유력한 증거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한다.

우선 李濬(1686~1740)의 『導哉日記』은 의암사적비의 건립 위치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 이 일기는 1717년부터 1731년까지의 개인사 기록으로, 향촌 사회의 변동 속에서 생활하던 양반들의 일상적 삶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⁶⁰⁾ 특히 1722년 7월 19일자 일기의 내용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그는 진주의 축석루에 등립하여 전란의 여러 자취를 둘러본 뒤 경내에 있는 한 비각에 시선을 집중하였다. 해당 부분에서 “축석루 주변에 비각이 있는데, 임진 창 의 때 전사한 사적이다. 석면의 각자를 어루만지며 삼가 읽으니 경모의 마음이 간절했다. 비의 동쪽에는 새로 창건한 비각이 있는데, 단청이 아름다웠다. 자획은 붉은 색으로 박아 넣은 것은 곧 당시 임병상이 건립한 의창비인데, 명문을 새겨 기린 이는 의창으로 이름은 논개였다.”⁶¹⁾고 기

말았다.

60) 김영미, 「18세기 전반 향촌 양반의 삶과 신앙-이준의 ‘도재일기’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지식인의 일상과 문화』(성기옥 외 지음), 이화여대 출판부, 2007, p.20.

록해 놓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戰亡 사적을 새겼다고 한 비각은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충절의 공훈을 남긴 장수들을 기리기 위해 1686년 경상우병사 李基夏가 주관하고 李敏敍가 비명을 지어 세운 ‘矗石旌忠壇碑’로 보인다. 그리고 그의 시선에 따라 목격된 사적으로는 이 비석의 동쪽에 새로 창건한 비각이 있고, 그 안에는 任兵使⁶²⁾가 건립한 ‘義娼碑’가 있으며, 의창의 이름은 論介라 명시했다. 여기서 ‘새로’의 단어 구사는 그가 축석루를 방문하기 3개월 전에 의창비가 이미 건립된 일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그리고 비각의 단청을 화려하게 하고 비석의 자획은 붉게 쓴 것이라 하여 실물의 구체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알려준다. 말하자면 이준의 일기는 의기 비석과 비각이 건립된 후 이루어진 최초의 현장 보고서라 할 만하다. 그는 계속해서 의창비의 서문과 명문을 인용해 수록한 다음,⁶³⁾ 논개의 충절이 계사년 순국열사인 고종후·황진·최경희와 동등하게 칭송되는 대상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일기에 인용된 비문을 검토해 보면, 그가 언급한 의창비는 앞에서 서술한 최진한과 정식이 건립한 의암사적비를 지칭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비문의 서문은 유몽인의 『어우야담』을 인용하여 수록한 정식의 『의암사적비명』의 并序를 요약한 것이고, 銘文은 자구 하나 가감 없이 비명의 것을 그대로 전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창비는

61) 이준, 『導哉日記』(국사편찬위원회 간행, 1999) 1722년 7월 19일조. “樓邊有碑閣, 乃壬辰彰義時, 戰亡事蹟也. 石刻摩挲, 奉讀之餘, 旋切景仰. 碑之東, 又有新創碑閣, 丹青窈窕. 字畫填朱, 乃時任兵相之所建義娼碑, 而贊銘者也. 娼名論介,”

62) 여기서 의외의 인물로 任병사가 거론되었는데, 하지만 이 무렵 임씨의 우병사는 『矗營道先生案』(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이나 『진양지』 등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편 당시 의기비 건립을 도운 이로 任氏 성의 경상좌병사를 추가로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의암사적비는 경상우병사 최진한과 정식이 건립한 것은 틀림없다.

63) 이준, 『도재일기』 7월 19일조. “其序文曰, 柳於于郎夢寅『野談』云, 義娼名論介, 壬辰陷城之日, 倭寇充斥, 人民魚肉. 倭又設宴于矗石, 論介仍盛服凝粧, 危坐于樓之下江之心, 岩上誘引倭將, 對舞作戲, 因挽抱投江而死云云, 其銘曰獨峙其岩, 特立斯女. 女非斯岩, 焉得死所. 岩非斯女, 烏帶義聲. 一江孤岩, 萬古芳名云云.”

의암사적비와 정확히 일치하고, 이를 통해 당시 의암사적비가 ‘의창비’라고도 불렸으며, 최초에 비각은 지금의 장소인 의암 위가 아니라 축석루에서 가까운 동쪽의 경내에 설치되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사진<2> 현재 의암사적비각의 처마에 걸려 있는 편액이다. 남덕하가 제청한 의기 정포에 대해 1740년 가을에 조정의 윤허가 내려졌고, 임금의 특별한 명령에 따라 1741년 봄에 정려각을 세웠다는 정보를 담고 있다.

두 번째로 제기한 문제로 의암사적비 외에 의기 현창을 위해 세운 또 다른 건축물의 존재 여부가 궁금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비각의 편액인 ‘義妓論介之門’(사진<2>.)을 다시 정밀하게 해독할 필요가 있다. 편액의 왼쪽 細註를 보면 정려 건립의 중심인물로서 南德夏(1688~1742)가 등장한다. 그는 1739년 4월에 경상우병사로 부임하여 진주성을 정비하고 여러 건물을 신축했는데, 최진한이 끝내 성취하지 못한 논개 순국의 공인화를 적극적으로 계승하여 추진하였다. 1740년 여름에 의기 정포의 은전을 요청하는 장계를 올렸고, 마침내 건의가 수용되어 동년 가을에 임금의 旌表 특명이 내려져 진주 사민의 숙원이 해결되었다.⁶⁴⁾ 이에 따라 관민들이 협력하여 1741년 봄에 의암 위의 언덕에 의기 정려각을 건립

하게 되었고,⁶⁵⁾ 함께 하사된 편액을 門楣에 걸었던 것이다.⁶⁶⁾ 한편 남덕하는 정려각을 신축하기 몇 개월 전에 임기 만료로 이미 진주를 떠난 상태라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지적할 수 있다.⁶⁷⁾

여기서 정려각의 건립 위치를 의암 언덕으로 추정한 것은 진주 선비 朴泰茂(1677~1756)의 「義妓傳」을 일차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기는 당시 영남의 진주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던 논개의 지고한 의혼을 표창하기 위해 지은 글이다. 그는 임금이 특명을 내려 의기의 정려를 세우도록 했으며, 그것이 의암 북쪽으로 수십 보쯤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서술했다.⁶⁸⁾ 이 내용은 진주 관민이 정려각을 세운 일을 반영한 것이므로 입전 시점은 1741년~1756년 사이가 된다. 이로써 정려각이 현재처럼 의암의 북쪽에 건립된 사실을 비정할 수

64) 조선조에는 충·효·열의 도덕 규범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인물을 뽑아 예조에 보고케 하여 旌閭·復戶·賞職·賞物 등으로 旌表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박주의 『조선시대의 정표정책』에 잘 나타나 있다. 본고에서는 정표를 위해 세운 문은 旌閭門으로, 건물은 旌閭閣으로 구분하여 사용했다.

65) 『충렬실록』 권2·「忠愍彰烈兩祠助享節目(安楠 찬, 1798)」, “英廟庚申(1740)本營兵使南公德夏, 又啓請二十一臣贈職及義妓旌褒之典, 竟得蒙允”의 기록과 의암사적비각의 편액인 ‘義妓論介之門’(사진<2>)에 부기된 “庚申(1740)秋, 因兵使南公德夏狀聞, 特命旌表, 辛酉(1741)春鐫建”이라는 小註에 각각 근거할 때 의기 정표의 유희는 1740년 가을에 얻었고, 정려각은 1741년에 건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66) 정동주는 논개 정표의 유희로 의기사를 건립할 때 ‘義妓論介之門’이란 사액을 받아 정려하였다고(『논개』, p.175)하면서도 정려의 장소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수업은 사당을 세우면서 <의암사적비>에도 비각을 짓고 ‘義妓論介之門’이라는 현판을 달았다고(『논개』, p.74) 함으로써 별도의 정려 건립은 고려하지 않았다.

67) 남덕하는 1738년 12월 경상우병사로 부임해와(『조선왕조실록』 882책<영조 14년 12월 6일조>) 1740년 10월까지 재직했다(『矗營道先生案』<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참조). 이를 근거로 볼 때 정려각은 남덕하가 창건한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뒤에서 편액을 의기사의 것으로 보고 이때 의기사가 창건된 것이라고 하는 관점도 근거가 없음을 밝힐 것이다. 현재 이런 사실이 간과된 채 여러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68) 박태무, 「義妓傳(1741 이후)」, 『서계집』 권6) “上聞之, 命立義妓之間. 間在義巖北數十步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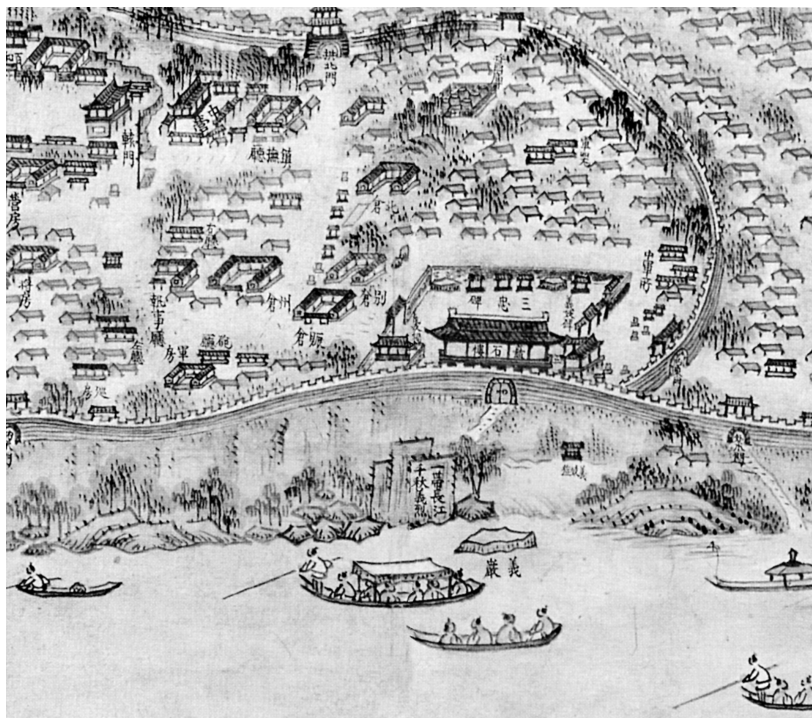
있다. 아울러 앞의 『도재일기』에 이러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준이 타계한 뒤에 정려각이 건립되었기 때문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위에서 편액을 旌閭門의 용도가 아닌 旌閭閣의 것으로 보았고, 아울러 여각의 건립 위치를 의암 위의 언덕으로 확정하였다. 이 견해를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유용한 증거는 채색필사본의 「旌州地圖」(그림<2>)이다.⁶⁹⁾

지도를 보면 우선 축석루 경내가 높은 기와 담으로 둘러쳐져 주변 공간과 확연히 구획되어 있음을 한눈에 보여준다. 그리고 축석루 본루를 중심으로 왼쪽에 ‘義妓祠’가, 오른쪽으로 부속누각인 동각이 그려져 있다. 또 본루의 북쪽에 세 개의 ‘三忠碑’가 보이는데, 계사년 전투 때 순절한 창지사 김천일, 경상우병사 최경희, 충청병사 황진 등 흔히 삼충사로 칭하는 전쟁 영웅을 기린 비석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져버렸고, 다만 그 좌대로 추정되는 龜趺가 축석루 경역의 ‘호국종각’ 남쪽 언덕에 남아 있을 뿐이다. 본 논지와 관련하여 이 지도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동각의 위쪽, 즉 삼충비 오른쪽으로 나란한 곳에 ‘義妓碑’, 축석루 아래의 성벽과 ‘義巖’ 북쪽 사이의 언덕에 ‘義妓旌’이 각각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의기비는 바로 『도재일기』에서 이준이 축석정춘단비의 동쪽에 있다고 언급한 의창비와 동일한 것이고,⁷⁰⁾ 의기정은 박태무의 「의기전」에서 거론

69) 김준형의 『1862년 진주농민항쟁』(지식산업사, 2001)의 표지로 활용된 「진주성도」에도 이와 유사하게 ‘삼충비’, ‘의기비’, ‘의기사’, ‘의암’ 등이 모두 그려져 있고, 위의 義妓旌이 여기에서는 ‘義妓亭’으로 표시된 점이 특이하다.

70) 최진한이 석비를 건립하고 난 뒤 비변사에 제출한 보고문에서 비석을 ‘의암 위’에 세웠다고 한 기록(『충렬실록』 권1·「申報備邊司文」 “公私并力, 才豎尺碑於義嶺之上.”)이 보이는데, 이는 이준의 『도재일기』 내용과 배치된다. 이를 이치에 맞도록 유추해보면 두 가지의 경우가 가능하다. 첫째는 의암사적비를 ‘의암 위 축석루 주변’에 세웠다고 표현해야 했는데, 논개 사적인 ‘의암’을 특히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건립 장소인 ‘축석루 주변’이라는 말을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1831년 4월 필사본으로 전해지던 임진·계사의 순국 공적을 목판본의 『충렬실록』으로 간행할 때, 19세기 초엽 의암사적비를 남문 밖으로 이전한 사실을 반영하려고 한 편찬자의 시각에 따라 최초의 「申報備邊司文」 내용을 수



그림<2> 19세기 중엽으로 추정하고 있는 채색필사본의 「진주지도」(80×122cm, 서울대 규장각 소장)의 일부인데, 진주성의 전체적인 풍경을 여러 세부로 묘사했다. 축석루를 중심으로 서쪽에 ‘義妓祠’가, 오른쪽에는 부속 누각인 동각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동각 위로 ‘義妓碑’(세로 글씨)가 있으며, 축석루 성벽 아래와 ‘義巖’의 위쪽 사이의 언덕에 ‘義妓旌’(가로 글씨)이 표시가 되어 있다. 의암 바로 위의 석벽에 ‘一帶長江 千秋義烈’의 刻字가 원래와는 다르게 세로로 쓰여 있다. 그리고 내성과 외성 안에 민가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축석루 앞의 동서로 길게 흐르는 남강에는 조어나 유람을 즐기는 배가 한가로이 떠 있는 모습도 보인다.

한 의기 정려각에 해당된다. 이처럼 「진주지도」는 일기와 입전 자료의 기

정하여 수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의암사적비를 직접 목격한 뒤 기록한 『도재일기』와 「진주지도」의 내용을 모두 부정할 수밖에 없는 모순에 이르고 만다.

록이 실제와 부합함을 증명하는데, 의기비 혹은 의창비로도 부른 의암사적비의 실제 위치가 축석루 경내이고, 정려각이 애초부터 별도의 장소에 건립된 역사적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상에서 『도재일기』, 「의기전」, 「진주지도」 등의 실증 자료를 통해 의기 비석과 정려각의 독자적 건립이 확인되었고, 의암사적비는 원래는 축석루 동각 위에 위치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아울러 논개 정포는 ‘의기’ 명명의 국가 차원의 공식화, 이를 표창하기 위한 정려각의 건립, 이 여각에 내걸 편액 ‘의기논개지문’의 하사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그런데 19세기 이후 어느 때 기존의 비각을 헐 뒤 비석을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여 의기 정려각에 함께 안치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의암사적비각의 형태가 되었고,⁷¹⁾ 이에 따라 정려각의 ‘의기논개지문’은 비각의 편액이 됨으로써 다소 의외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여러 입증 자료를 통해 밝혀낸 이 사실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판이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되짚어 볼 문제라 하겠다.

만일 현재의 모습처럼 비석과 정려각을 동시에 건립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비석의 명칭으로서 의암사적비가 아닌 ‘의기사적비’나 ‘의기논개비’나 ‘의기논개사적비’ 등이어야 편액에 걸맞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는 위에서 검토한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71) 송병선의 「丹晉諸名勝記(1872)」에 진주성 남쪽을 따라 나가서 강 가운데 북처럼 생긴 바위, 성 기와와 백 여척 길이로 죽 늘어선 커다란 바위, ‘義巖’이라 새겨진 바위와 ‘一帶長江, 千秋義烈’이라 새겨진 서쪽 벽을 보았고, 강물에 술을 친 뒤 한참 배회하다 나와서 비문을 읽은 다음 다시 내성의 남문으로 들어와 창렬사를 배알했다는(“緣城南出, 有巖陡起江中, 形如鼓. 又有大石連城瓦臥, 與巖去可百尺餘, 江水回入. 其黑黝然. 巖面刻義巖, 西壁又書‘一帶長江, 千秋義烈’. 余乃把酒酌江, 彷徨良久, 出而讀碑文, 復從南門入, 謁彰烈祠.”) 기록이 있다. 그가 유람한 동선을 추적할 때 의암사적비는 진주성 남문 밖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비석은 적어도 1872년 이전에 벌써 남문 밖인 지금의 위치로 이전했음을 알 수 있고, 위의 각주 70)에 근거할 때에는 1831년 3월을 하한선으로 잡을 수 있다. 한편 ‘一帶長江, 千秋義烈’의 각자는 한몽삼(1598~1662)의 글씨라고 전한다.(『진양속지』 권4·「고적」<『국역 진양지』, p.512>)

의기 비각과 정려각이 동시대에 따로 존재한 것임에 근거하여 복원의 문제를 고려해볼직도 하지만, 최소한 정려각 건립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 의암사적비각의 명칭 대신에 ‘義妓旌’, ‘義妓閭’, ‘義妓 旌閭’, ‘義妓 旌閭碑’ 중의 하나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⁷²⁾

마지막으로 義妓祠는 논개 순국이 공식화되자 진주의 관민이 논개의 절의를 특별히 배향하기 위해 축석루가 바로 이어진 서쪽 언덕 위에 건립한 사당이다. 의기 정포가 내려진 수개월 후 창건된 정려각을 참작하면,⁷³⁾ 그 시점은 1741년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뒤에 신축한 것으로 추정된다.⁷⁴⁾ 이 이후에 퇴락해져 비바람이 배어들던 것을 1779년 경상우병사 洪和輔가 보수하였고, 이듬해에 그의 딸과 함께 자신을 다시 찾아온 사위 丁若鏞에게 사당 보수의 전말을 담은 글을 짓도록 함으로써 「晉州義妓祠記」가 지어졌다.⁷⁵⁾ 그리고 1824년에 진주목사 洪百淳과 경상도 관찰사 李止淵(1777~1841)이 중건하였고, 1868년 진주목사 정현석이 의암별제를 지내면서 또다시 중건했다. 이후 3·1운동 이후 한 차례 보수한 바 있고, 1934년 6월에는 義妓 제사를 받들던 단체인 ‘진양여자위친계’가 주동이 되어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헐린 기둥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낡은 단청을 새로 입혀 중수를 완료했다.⁷⁶⁾ 1950년 6·25 전쟁 때

72) 의암사적비각은 근대에도 여전히 義妓閭(1927년 2월 22일자 「동아일보」 기사 참고)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1938년에 편찬된 『조선환여승람』·「진주군지」를 보면 ‘의암사적비’는 <豎碑>조에, ‘義妓論介閭’는 <旌閭>조에 각각 수록되어 있는데, 정려각이 축석루 아래 있다고 하여 따로 서술한 것도 본고의 논지를 뒷받침한다.

73) 김경진의 「晉陽城義妓捨生(1843)」(『청구야담』 권3)에도 “亂平後, 旌論介曰義妓, 立祠江上祭之.”라는 구절이 있는데, 의기사가 의기 정포가 내려진 것을 계기로 세워졌음을 보여준다.

74) 남덕하가 의기사를 창건하였다고 기술하는 예가 많으나 어떤 경우에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창건한 것이라면 경상우병사를 그만둔 1740년 10월 이전으로 앞당겨져야 한다.

75) 정약용, 「晉州義妓祠記(1780)」(『다산시문집』 권13). 한편 지금 의기사의 「義妓祠記」 현판에는 작성 시점이 순조 2년(1802)으로 되어 있으나, 기문의 작성 경과나 그의 연보를 참고할 때 1780년이 맞다.

축석루와 함께 불탄 것을 1956년 ‘의기창렬회’가 정면 3칸과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의 건물로 재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복구하면서 오른 쪽에 나 있던 의기사 출입문을 없애버렸는데, 일제강점기 때 찍은 사진으로나마 모습이 전해지고 있다.⁷⁷⁾

이상에서 검토한 의암은 임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됨으로써 논개 순국의 신뢰성을 강하게 부여했고, 의암사적비와 의기사는 논개의 애국심과 충의 정신의 상징 공간이 되어 이곳을 참배한 시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⁷⁸⁾ 이제 축석루 건물 자체의 경관만이 인식의 범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축석루는 승경과 충절이 통합적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시의 제재로 다각도로 수렴되어 제영시 창작에서 하나의 보편적 현상이 되게 했다. 설령 의암,⁷⁹⁾ 의암사적비,⁸⁰⁾ 의기사⁸¹⁾ 등이 따로 제시되더라도 승경보다는 충절의 감회

76) 1934년 7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의 제목 “의기사 수리 낙성, 축석루서 축하식”

77) 국립진주박물관, 『사진으로 보는 진주의 옛 모습』, 2004.

78) 송치규, 「滄波鄭公墓表」(『강재집』 권10) “嘗遊蠡石江, 拜義妓論介碑, 人或譏之. 公(鄭魯)曰 吾拜其義也.”

오횡목, 「論介祠銘并敘事」(『충쇄록』 권21) “事聞旌而祠之. 其後二百年, 星州人鄭蓍, 慕其義拜于祠.”

황 현, 「義妓論介碑」(『매천집』 권3) “楓川渡口水猶香, 濯我須眉拜義娘.”

79) ‘의암’을 시제로 내세운 작품을 들면 다음과 같다. 정식(「義巖」, 『명암집』 권1), 심육(「義巖」, 『저촌유고』 권10), 박래오(「義巖」, 『이계집』 권1), 조의양(「回至蠡石樓次李仲誠詠義巖韻」, 『오죽재집』 권1), 최광삼(「義巖」, 『만회당유집』 권1), 김양순(「義妓巖」, 『건옹공시고』), 민재남(「義巖」, 『회정집』 권1), 하달홍(「義巖」, 『월촌집』 권1), 박치복(「論介巖」, 『만성집』 권3), 하용표(「論介岩」, 『월담유고』 권1), 최원숙(「晉陽義妓巖感古」, 『신계집』 권1), 김병린(「義妓巖」, 『용계아언』), 안종창(「義妓巖」, 『회계집』 권1), 한유(「巖上女」, 『우산집』 권2), 강수환(「論介巖」, 『실악집』 권1), 김창숙(「義妓巖」, 『심산유고』 권1), 박원중(「義妓巖」, 『직암유집』 권1), 김상준(「義妓巖」, 『남파유고』 권1) 등

80) ‘의암사적비’를 시제로 한 작품으로 황현의 「義妓論介碑」(『매천집』 권3), 李秉延의 시(「조선환여승람」·「진주군지」〈豎碑조〉) 등이 있다.

81) ‘의기사’를 시제로 삼은 작품을 들면 다음과 같다. 이지연(「義妓祠」, 『회곡집』 권1), 오횡목(「蠡石樓下論介祠」(『충쇄록』 권5), 이상규(「題義妓祠壁上」, 『해산집』 권3), 이돈모(「義娘祠」, 『근재집』 권1), 김상준(「義妓祠」, 『남파유고』 권1), 김희

가 주조를 이루었음을 강조할 수 있다. 이는 17세기 이후 축석루 제영시에서 구현된 주제의 큰 변화 양상인데, 제재의 함의가 대폭 달라진 성격을 반영한 결과로 생긴 문학적 현상이었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는 축석루 제영시의 전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준 제재의 성격 변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작품의 감상은 제재에 대한 철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4. 맺음말

진주의 축석루는 고려 중엽에 창건된 이후 관리들의 공무 활동이나 여가 행위를 핵심 공간이 되었다. 남강 위의 높은 절벽에 우뚝하게 세워진 축석루는 절경의 산수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과 시대마다 다양한 역사성이 가미됨으로써 여러 문인들이 그곳에 등림하여 풍류를 즐기고 제영시를 창작하는 동인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풍부하게 전해지게 된 축석루 제영시는 진주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대표적으로 함유하는 문학적 갈래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의의를 갖고 있는 축석루 시를 분석하고 감상하려면 먼저 제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축석루라는 인위적 실체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변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시대별로 제영시는 제재의 변천 양상을 반영해야만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제재의 특징이 새로운 경향의 작품을 창작하게 하는 지배적인 요인이 되었음을 뜻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제재로서의 축석루 성격에 주목하고, 기존의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간과되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축석루는 창건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례의 대대적인 중수를

연(「義巖祠」, 『수암유고』 권1) 등.

거쳤는데, 여러 차례의 자연적인 퇴락이나 외침에 의한 강제 훼손이 원인이 되었다. 기존의 경우 일곱 차례 중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서 1786년과 1887년 두 차례 더 축석루 중수가 있었던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로써 18세기 이후 200여 년간 중수의 공백 기간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592년 제1차 진주성 전투 때에는 무사했던 축석루가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성이 함락될 때 전파의 위기는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일부의 훼손은 피할 수 없었는데, 1618년에 전면적으로 중건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축석루가 당시 전소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여러 문헌을 검토한 결과 부분적 피해로 보는 것이 실제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축석루는 본루 외에 서각과 동각을 부속 누각으로 거느린 웅장한 규모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 임란 전까지만 해도 서각인 쌍청당과 임경헌이, 동각인 함옥헌과 청심헌이 본루의 좌우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중 서각은 제2차 진주성 전투 때 소실되어 끝내 복구되지 않았고, 동각은 1604년에 즉각 중수되었다. 그리고 동각 중 청심헌은 1757년 이전에 훼손되었고, 함옥헌은 1888년 중수를 거쳐 400여 년간 부속누각 중 유일하게 존속되다가 20세기 초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렇듯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부속 누각의 존재를 감안할 때 이를 제재로 한 축석루 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의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축석루의 빼어난 경관은 부속 누각이 존재할 때 심미적 요소가 더욱 배가되었다. 제영시 중에서 개인적인 풍류 흥취나 진주의 자부심을 형상화한 것이 많은데, 이는 축석루의 승경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한편 임진왜란의 특수한 경험은 제재로서의 축석루를 확장하고 주제 의식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진주성 함락으로 참혹한 피해를 준 왜적에 대한 집단적 적개심, 전후 누각 중건에 따른 희열과 민족적 자부심 등은 축석루 제재에서 발견한 새로운 인식 내용이다. 이러한 제재의 성격 변화는 축석루에 등립한 시인의 정서를 지배했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축석루의 임진 사적은 제재의 성격 변화를 더욱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의암, 의암사적비, 의기사 등 논개 순국의 현장은 애국심과 충의 정신의 상징적 공간이 되어 문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이로써 축석루는 승경과 충절의 통합적 이미지로 형성되어, 제영시의 시제나 소재로 폭넓게 수용되었다. 대부분 축석루의 승경보다는 충혼의 감회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결국 축석루 제재의 확장은 제영시 주제 영역의 심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논개의 사적 중 의암사적비는 현재 의암 위 언덕의 비각 안에 있다. 원래 비석은 축석루의 부속 누각인 동각 위에 건립되었고, 이것과는 별개로 약 20년 뒤에 ‘의기논개지문’의 사액을 받아 정려각을 의암 위의 언덕에 세운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어느 시기에 비석을 현 위치로 이전하여 정려각에 함께 안치함으로써 지금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축석루의 역사적 변천에서 보듯이 그 제영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면 기초 단계로서 제재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고, 아울러 본고에서도 미처 규명되지 않은 점은 지속적으로 검토할 대상임을 덧붙여 둔다.

참고문헌

-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0<진주목>, 권26<밀양도호부>(민족문화추진회 역, 1969)
- 成汝信, 『晉陽誌(1632)』(조선시대 사찬읍지 22, 한국인문과학원 영인, 1989)
- 『輿地圖書(1757~1765)』<경상도 右兵營·晉州>(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영인, 1973)
- 『晉陽誌(1924)』·『晉陽續誌(1932)』·『晉陽續誌(증보, 1967)』(진양문화원, 『국역 晉陽誌』, 1991)
- 鄭光鉉, 『晉陽誌續修(1927)』, 진양 개문사.
- 李秉延, 『朝鮮輿地勝覽(1938)』<진주군>(조선환여승람 5, 한국인문과학원 영인, 1993)
- 徐居正 외, 『東文選』
- 진주문화원, 『진주성 文記』, 2007.
- 축석문우사, 『臺石樓誌』, 1960.
- 류성룡, 『懲毖錄』(김홍식 역, 『정비록』, 서해문집, 2003)
- 이순신, 『亂中日記』(김경수 편저, 『평역 난중일기』, 행복한 책읽기, 2004)
- 정덕선·윤태권 편, 『忠烈實錄(1831)』(진주문화원, 『국역 충렬실록』, 2005)
- 유몽인, 『於于野談』(신익철 외 옮김, 『어우야담』, 돌베개, 2006)
- 김경진, 『晉陽城義妓捨生』, 『靑邱野談』권3(『한국문헌실화전집』2,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태학사, 1981)
- 강희근, 『진주팔경』, 지식산업사, 2007.
-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 편, 『論介 事蹟 연구』, 신지서원, 1996.
- 김수업, 『논개』, 지식산업사, 2001.
- 김준형, 『1862년 진주농민항쟁』<진주문화를 찾아서 4>, 지식산업사,

2001.

정동주, 『논개』, 한길사, 1998.

서울대 규장각, 『규장각 명품도록』(4쇄), 2004.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임진왜란』, 통천문화사, 1998.

박경도·이상훈, 『사진으로 보는 진주의 옛 모습』, 국립진주박물관,
2004.

『(慶尙)道先生案』(국회도서관, 서울대 출판부, 1970)

『矗營先生案』(국립중앙도서관)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동아일보」 등

고혜령, 「고려 사대부와 元 制科」, 『국사관논총』24, 국사편찬위원회,
1991.

김범수, 「축석루 창건고」, 『진양문화』4, 진양문화원, 1993.

김영미, 「18세기 전반 향촌 양반의 삶과 신앙-이준의 ‘도재일기’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지식인의 일상과 문화』(성기옥 외 지음), 이화
여대 출판부, 2007.

박경원, 「진주 축석루 창건고-여말선초의 누각경영-」, 『고고미술』165,
한국미술사학회, 1985.

박 주, 『조선시대의 旌表 정책』, 일조각, 1990,

유승주, 「진주성의 義妓 논개고」, 『최영희선생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동 간행위원회, 탐구당, 1987.

이종문, 「金之岱의 생애와 시세계」, 『한문학연구』17, 계명한문학회, 2003.

하강진, 「김해 燕字樓 제영시 연구」, 『지역문학연구』10, 경남·부산지역
문학회, 2004.

_____, 「밀양 嶺南樓 제영시 연구」, 『지역문학연구』13, 경남·부산지역
문학회, 2006.

_____, 「퇴계 학파의 영남루 제영시에 대하여」, 『퇴계학논총』13, 퇴계학
부산연구원, 2006.

허권수, 「명암 鄭栻의 생애와 시문학에 대한 고구」, 『남명학연구』17,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4.

황의열, 「촉석루 시 평설」, 『경남문화연구』20,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 1998.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국회도서관 <http://u-lib.nanet.go.kr>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고문헌시스템 <http://nmh.gsnu.ac.kr>

디지털진주문화대전 <http://jinju.grandculture.net>

姜璫桓(1876~1929), 『雪嶽集』(경상대 문천각)

姜 渾(1464~1519), 『木溪逸稿』(한국문집총간 17)

權克中(1585~1659), 『靑霞集』(한국문집총간 속 21)

金驥燦(1748~1812), 『東郭遺稿』(국립중앙도서관)

金道洙(1699~1742), 『春洲遺稿』(한국문집총간 219)

金 玜(1540~1616), 『栢巖集』(한국문집총간 50)

金柄璘(1861~1940), 『龍溪雅言』(국립중앙도서관)

金相峻(1894~1971), 『南坡遺稿』(경상대 문천각)

金安國(1478~1543), 『慕齋集』(한국문집총간 20)

金陽淳(1776~1840), 『健翁公詩藁』(국립중앙도서관)

金駟孫(1464~1498), 『濯纓集』(한국문집총간 17)

金昌淑(1879~1962), 『心山遺稿』(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역, 1979)

金澤榮(1850~1927), 『韶濩堂集』(한국문집총간 347)

金學淳(1767~1845), 『華棲集』(국립중앙도서관)

金熙淵(1895~1971), 『守庵遺稿』(경상대 문천각)

柳景深(1516~1571), 『龜村集』(한국문집총간 속3)

柳遠準(1899~1982), 『正齋集』(경상대 문천각)

閔在南(1802~1873), 『晦亭集』(국립중앙도서관)

- 朴來吾(1713~1785), 『尼溪集』(국립중앙도서관)
 朴承任(1517~1586), 『嘯臯集』(한국문집총간 36)
 朴遠鍾(1887~1944), 『直庵遺集』(국립중앙도서관)
 朴致馥(1824~1894), 『晚醒集』(국립중앙도서관)
 朴泰茂(1677~1756), 『西溪集』(경상대 남명학연구소, 『국역 서계선생집』, 가람, 2008)
 裴 紳(1520~1573), 『洛川集』(경상대 문천각)
 白文寶(1303~1374), 『淡庵集』(한국문집총간 3)
 成汝信(1546~1632), 『浮查集』(한국문집총간 56)
 成 俔(1439~1504), 『虛白堂集』(한국문집총간 14)
 成煥赫(1908~1966), 『于亭集』(경상대 문천각)
 宋秉璫(1836~1905), 『淵齋集』(한국문집총간 329, 330)
 宋穉圭(1759~1838), 『剛齋集』(한국문집총간 271)
 申維翰(1681~1752), 『靑泉集』(한국문집총간 200)
 沈 鎭(1685~1753), 『樛村遺稿』(한국문집총간 207)
 安鍾彰(1865~1918), 『希齋集』(국립중앙도서관)
 梁應鼎(1519~1581), 『松川遺集』(한국문집총간 37)
 吳斗寅(1624~1689), 『陽谷集』(국립중앙도서관)
 吳玄默(1834~ ?), 『叢瑣錄』(서울대 규장각)
 兪好仁(1445~1494), 『潛谿集』(한국문집총간 15)
 李 穀(1298~1351), 『稼亭集』(한국문집총간 3)
 李光胤(1564~1637), 『瀼西集』(국립중앙도서관)
 李光庭(1674~1756), 『訥隱集』(한국문집총간 187)
 李敦模(1888~1951), 『謹齋集』(국립중앙도서관)
 李 魯(1544~1598), 『松巖集』(한국문집총간 54)
 李 陸(1438~1498), 『靑坡集』(한국문집총간 13)
 李祥奎(1846~1921), 『惠山集』(부산대 도서관)
 李 穡(1328~1396), 『牧隱集』(한국문집총간 3, 4)

- 李彦迪(1491~1553), 『晦齋集』(한국문집총간 24)
- 李裕元(1814~1888), 『嘉梧藁畧』(한국문집총간 315)
- 李仁老(1152~1220), 『破閑集』(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영인)
- 李 濬(1686~1740), 『導哉日記』(국사편찬위원회, 1999)
- 李止淵(1777~1841), 『希谷集』(국립중앙도서관)
- 鄭 栻(1683~1746), 『明菴集』(국립중앙도서관)
- 丁若鏞(1762~1836), 『與猶堂全書』(한국문집총간 281~285)
- 趙性家(1824~1904), 『月皐集』(국립중앙도서관)
- 趙宜陽(1719~1808), 『梧竹齋集』(국립중앙도서관)
- 崔光參(1741~1817), 『晚悔堂遺集』(경상대 문천각)
- 崔 昱(1539~1612), 『簡易集』(한국문집총간 49)
- 崔源鼎(1854~1922), 『新溪集』(국립중앙도서관)
- 崔益鉉(1833~1906), 『勉菴集』(한국문집총간 325)
- 河達弘(1809~1877), 『月村集』(국립중앙도서관)
- 河龍杓(1848~1921), 『月潭遺稿』(경상대 문천각)
- 河 崙(1347~1416), 『浩亭集』(한국문집총간 6)
- 河守一(1553~1612), 『松亭集』(한국문집총간 61)
- 韓夢參(1589~1662), 『釣隱集』(한국문집총간 속23)
- 韓 愉(1868~1911), 『愚山集』(국립중앙도서관)
- 韓浚謙(1557~1627), 『柳川遺稿』(한국문집총간 62)
- 洪直弼(1776~1852), 『梅山集』(한국문집총간 295)
- 黃俊良(1517~1563), 『錦溪集』(한국문집총간 37)
- 黃 鉉(1855~1910), 『梅泉集』(한국문집총간 348)
- _____, 『梅泉野錄』(임형택 외, 『역주 매천야록』, 문학과지
성사, 2006)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 of Topics of the Poems on the Chok-seok Pavilion in Jin-ju

Ha, Kang-Jin

The Chok-seok Pavilion(矗石樓) was a subject material of many poems because the Chok-seok Pavilion, located on a cliff beside the Nam River(南江) in Jin-ju(晉州), had an excellent view and historicity at various tim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transition process of the Chok-seok Pavilion to appreciate highly literary poems on the Chok-seok Pavilion which is representative of Jin-ju.

The Chok-seok Pavilion has been rebuilt nine times since it was founded about the middle of the time of Gor-yeo(高麗) dynasty at first time. Most literatures have described that the Chok-seok Pavilion was totally destroyed by fire during the second Jin-ju castle combat in 1593. It was adequate that the Chok-seok Pavilion was destroyed in part at that time.

The Chok-seok Pavilion was a huge scale with annexes. The annexes in the east werethe Harm-ok Pavilion(涵玉軒) and Chung-sim Pavilion(淸心軒). There were the Ssang-chung House(雙淸堂) and the Im-kyeong Pavilion(臨景軒) in the west at different periods. The pavilions in the west destroyed by fire during the Im-jin war(壬辰亂) have never rebuilt. The Harm-ok Pavilion continued to exit for about 400 years and, however, was disappeared at the beginning of the 20 century. This fact was mentioned in the article for the first

time.

The main themes of the poems on the Chok-seok Pavilion were the gusto of refined taste due to the aesthetic characteristic of the Pavilion and the pride of Jin-ju.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3, many poems expressed the collective hostility against the enemy Japan, the delightful feelings about the reconstruction of the Chok-seok Pavilion, and the ethnical pride. This characteristic change of the topics diversified the subjects of the works. The representatives of the characteristic change were specific None-Gae's historical relics(論介事蹟) such as the Public-spirited Rock(義巖), the Monument of the Public-spirited Rock(義巖事蹟碑), the Shrine of Public-spirited Gisaeng(義妓祠).

They became the symbolic spaces giving literary men deep impression. Owing to this, the topics of the Chok-Seok Pavilion extended to the integrated image of a beautiful scenery and fidelity to the country and deepened the subjects of the poems on the Chok-Seok Pavilion.

Key Words : history of Chok-seok Pavilion, vicissitude of belong to Chok-seok Pavilion, aesthetic appreciation of Chok-seok Pavilion, None-Gae's historical relics, Public-spirited rock, Monument of public-spirited rock, Shrine of public-spirited gisaeng, monument house of public recognition, subject's extension, theme's deepening